

# 리아호나

많은 계시가  
주어진  
1829년의 사건들  
12쪽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는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을까?  
18쪽

음식 알레르기: 교회를  
더 안전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22쪽

장애가 아닌 능력으로  
그 사람을 정의하라,  
28쪽

여기에  
교회가  
있다

# 미국 펜실베이니아 오클랜드 타운십



# 니아주

이 집은 하모니에 있던 조셉과 에머의 집을 재건한 것으로 신권의 회복과 관련된 유적지에 있다. 현재 하모니는 오클랜드 타운십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10 사스케하나 지부를 포함하여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스테이크에 속한 와드와 지부의 수.

신권 회복 유적지에서 뉴욕 팔마이라 성전까지의 거리 (km).



15 교리와 성약에 수록된 계시 중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에서 받은 것.

조셉과 에머의 집에서 번역된 몰몬경의 대략적인 비율(%).



1804 에머 헤일(후에 조셉 스미스와 결혼함)이 하모니에서 태어나다.

1829 침례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하다. 그 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다.

1960 신권의 회복을 기리는 기념비가 유적지에 세워지다.

2015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신권 회복 유적지를 헌납하다.



history.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교회 유적지에 관해 더 알아볼 수 있다.

사진 촬영: 캐슬리 블손



회복에서 신권이 차지하는  
중대한 역할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12



교회에서 식품 알레르기  
문제를 다루는 방법  
리사 앤 톰슨

22

장애와 특별한 교훈  
폴 비 파이퍼 장로와  
멜리사 티 파이퍼  
28



## 침례를 결정하면서

**남**편과 저는 최근에 일곱 살 난 우리의 아들이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자폐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며 고려한 여러 요소들을 18쪽에서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장애 전문가로서, 장애가 있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장애가 있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와 그 가족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번 호에는 장애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와드와 지역 사회에서 포용하는 문화를 더 잘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여러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 28쪽: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칠십인 정원회의 폴 비 파이퍼 장로와 그의 아내 멜리사 자매가 부모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 21쪽: 교회 공과와 부름을 수행할 때 장애가 있는 회원들을 더 잘 포용할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의 기사 끝부분에 나옵니다.
- 친16쪽: 부모들은 『친구들』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활용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는 본보기를 자녀들이 살펴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를 읽는 동안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교리와 성약 18:10)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이 넘치고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수께로 나아와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얻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을 담아,  
케이티 에드나 스티드  
장애 전문가, 신권 가족부

# 목차

## 5 아론 신권의 회복

### 6 신앙의 초상

리니 우일라우

리니는 한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성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녀의 분노를 평화로 바꾸어 주었다.

### 8 성역의 원리

성찬식을 통한 성역

성찬식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성역을 배풀 기회가 된다.

### 12 회복에서 신권이 차지하는 중대한 역할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신권이 다시 지상에 주어졌기에 회복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 18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는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을까?

케이티 에드나 스티드

우리 아들은 이제 곧 여덟 살이다. 그 아이가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 22 교회에서 식품 알레르기 문제를 다루는 방법

리사 앤 톰슨

우리는 때로 사랑을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음식을 활용한다. 그러나 식품 알레르기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음식을 **아예 없애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 28 장애와 특별한 교훈

폴 비 파이프 장로와 멜리사 티 파이프

우리 딸은 장애가 있는 아이이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 32 후기 성도의 소리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된 교사, 자신의 직업과 복음 사이에서 선택한 형제, 태아의 안전을 위해 기도한 부부, 성전 방문을 통해 마음을 열게 된 형제.

### 36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사랑의 은사

페이스 에스 왓슨

남편이 딸에게 준 애정 어린 신권 축복을 지켜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보았다.

### 38 와서 나를 따르라: 물문경

이 주간 기사들은 여러분의 이번 달 물문경 학습을 뒷받침할 수 있다.

짧은 기사

와서 나를 따르라 지원



표지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린다 커티 크리스텐슨과 마이클 말름

# 섹션

청년 성인

42

데이트를 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 줄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느낄 필요는 없다.

영원한 동반자를 찾을 때 느끼는

압박감을

훌륭하게

해소한 청년

성인들의

이야기를 읽어

본다.



청소년

50

청년 조직의 역사에 관해 배워

보자!



어린이  
친구들

에이비시에 대해 알아보고,

독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 본다.



6월 온라인 전용 기사



그는 신권 축복이 필요했다. 내가 축복을 줄 수 있을까?

오데일 존슨

한 청년 성인이 신권 축복을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딸의 장애를 통해 은혜를 배우다

제프리 에스 매클렐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한 아버지의 통찰을 만나 본다.



다시 알게 된 그의 모습과 영의 인도를 신뢰하며

마리 네츨러

호주의 한 청년 성인이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줌으로써 그녀의 삶이 어떻게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독신으로 살아가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다

크리스티나 코터렐

한 청년 성인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찾았는지를 이야기한다.

2020년 6월호 제57권, 제6호 리아호나 16721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욱스, 헬리 비 아이어링
심이사도 정원화: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랜드,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다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게리 아 스티븐슨, 데일 지 랜런드, 게릿 더블유 쿡, 올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랜디 디 핑크
고문: 베키 크레이븐, 쉐런 윙뱅크,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윌리엄 콘잘레스, 래리 에스 캐처, 쟈 이 뉴먼, 아드리안 오초아, 마이클 티 링우드, 번 피 스탠필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히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자: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자: 라이언 카
출판 보조: 가릴라 카스트리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리턴,

게릿 에이치 가르, 존 라이언 젠슨, 에런 존스턴, 살렛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조슈아 제이 퍼키, 쟈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롭니, 민다 셀루, 로리 풀러 소사, 차켈 워들레이, 머러사 위디슨
편집 인턴: 알라이나 왕스가드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루스, 페이 피 앤드루스, 멘디 벤들러, 시 김볼 보트, 토머스 차일드,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린, 콜린 핑클러,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알레니 레기어, 마크 더블유 로빈슨, 케이 니콜 위큰호스트
디자인 인턴: 켈시 파크렐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슨
제작팀: 아이라 클렌 어데어, 줄리 버넷, 호세 차베스,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낄슨, 머러사 엠 스키스
사건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터 루이스
배부 책임자: 넬슨 콘살레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5호, 제57권, 제6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20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박경렬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안덕현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준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원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ChurchofJesusChrist.org.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추가 정보

복음 자료실 앱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에서 여러분은

- 최신호 리아호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용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과월호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이야기와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독 신청을 하거나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한국어 앱에는 해당되지 않음)
• 디지털 도구로 학습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마음에 와닿는 기사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기사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마음에 와닿는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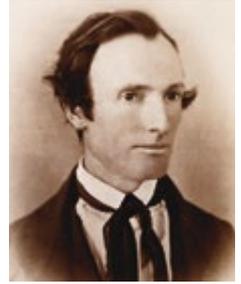
질문과 피드백이 있다면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floor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December 2019 Vol. 43 No. 12.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 아론 신권의 회복

1829년 5월 15일, 침례 요한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다. 다음 인용문들은 그 중요한 날과 관련된 그들의 기록에서 발췌한 것으로,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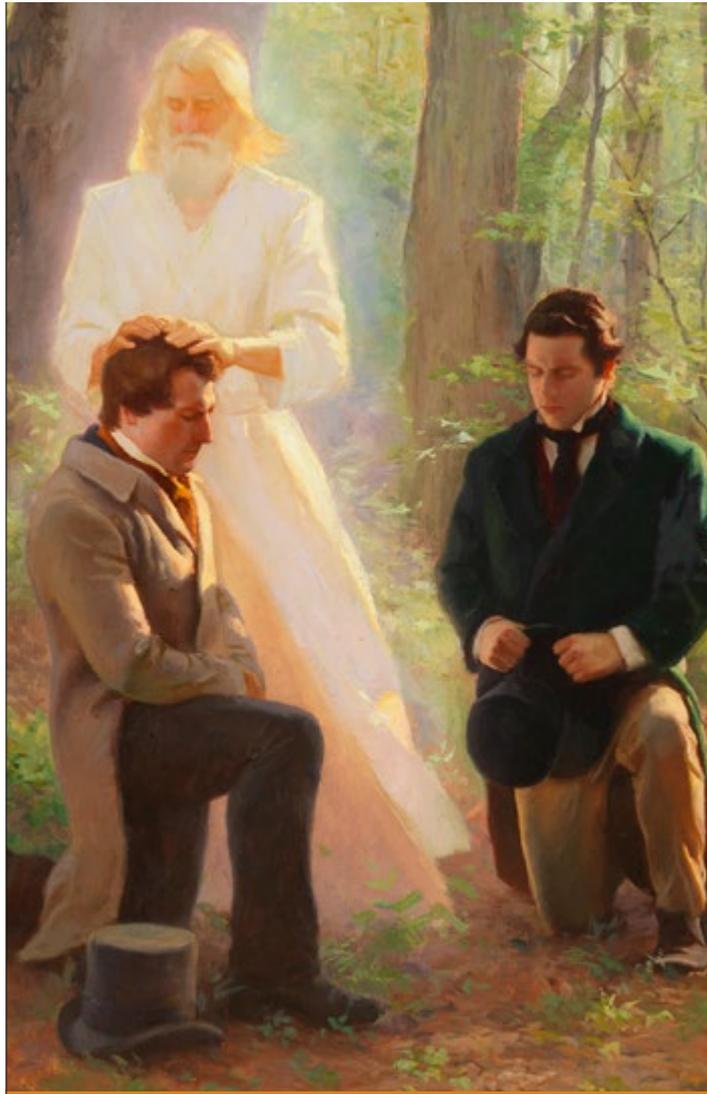


1836년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신권 열쇠들이 회복될 때 올리버 카우드리도 조셉 스미스와 함께 있었다.

“**이** 때에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이 신권을 부여한 사자는 자신의 이름이 요한이며, 신약전서에서 침례 요한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은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지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 아래 행동한다고 말하였[다].”

조셉 스미스,  
조셉 스미스—역사 1:72; 강조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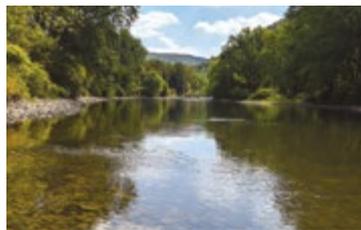
“마치 영원 가운데서 온 것같이 구속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으며, 한편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영광을 입고 내려와 간절히 바라던 말씀과 회개의 복음의 열쇠를 전해 주었다. 얼마나 기뻐했던가! 얼마나 기이하였던가! 얼마나 놀라웠던가!”

올리버 카우드리,  
조셉 스미스—역사 1:71, 각주, 강조체 추가

“나의 동역자 된 중의 너희에게”, 린다 캘리 크리스텐슨과 마이클 맬름 시스케어나강 사진. 브래드 워거 스테디스트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를 베푸는 성경 비디오의 한 장면.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에 있는 사스케하나강. 1829년 5월 15일에 이 근처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침례를 받았다.

신권의 회복과 핵심 역할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12쪽에 실린 게리 이스티븐슨 장로의 기사, “회복에서 신권이 차지하는 중대한 역할”을 참조한다.

## 리니 우일라우

사모아 사바이



리니는 한때 분노의 감정과 조금만 성격으로 힘들어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와 복음대로 생활하면서 이러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레슬리 닐슨, 사진작가

나는 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린이들에게 정말 친절하셨다.

나는 좀 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가족 모두를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우리 가족은 매일 밤 함께 경전을 읽고 기도를 드린다.

이제 나의 마음은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 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 가정에서 더 많은 사랑과 평안과 행복을 느낀다. 복음을 통해 더 나은 아내, 더 나은 어머니, 더 나은 할머니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 더 알아보기

더 많은 사진을 비롯해 리니의 신앙의 여정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복음 자료실이나 [ChurchofJesusChrist.org/go/6206](https://ChurchofJesusChrist.org/go/6206)에서 이 기사의 온라인 버전을 참조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빌 엘 앤더슨 장로가 가르친 내용을 [ChurchofJesusChrist.org/go/6207](https://ChurchofJesusChrist.org/go/6207)에서 읽어 본다.

## 성역의 원리

# 성찬식을 통한 성역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쌓고  
그들에게 성역을 행할 기회를 얻는다.

**성**찬식은 영적인 양분을 얻고 구주와 그분의 속죄에 관해 개인적으로 되새겨 보는 시간이다. 매주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함께 교화된다.(교리와 성약 84:110 참조) 그러나 와드 지부 회원 중에는 무거운 짐을 진 채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신성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행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성역 대상자가 성찬식에서 더 좋은 경험을 하도록 돕는다

성역을 행할 방법을 알아내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 개인이나 가족과 친해지고, 그들의 필요 사항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들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성찬 예배에서 더 좋은 경험을 하도록 도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어린 쌍둥이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인 민디는 자매 성역자의 단순한 노력 덕분에 매주 참석하는 성찬식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민디는 이렇게 말한다. “남편의 업무 일정 때문에 저는 매주 쌍둥이 딸을 데리고 혼자서 교회에 갑니다.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는 아이들을 돌보며 성찬식에 끝까지 참석하는 건 정말 버거운 일이죠. 그런데 제 자매 성역자가 저를 돕기 위해 나서

주셨어요.

그 자매님은 매주 제 옆에 앉아 아이들을 돌보는 저를 도와주십니다. 그 자매님이 저와 같이 앉아 있는 것 만으로도 제겐 큰 힘이 되고, 아이들이 떼를 쓰거나 짜증을 부릴 때에는 제 불안감을 덜어 줍니다.

그분은 제 삶의 이 시기에 자신이 보여 준 행동이 제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마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불안감에 가득 찬 젊은 엄마인 제게 필요한 것들을 파악한 뒤,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 특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아이디어

- 회원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관련하여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과 상의한다.
- 지도자들은 회원들의 필요 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성찬식 말씀을 계획한다. 성역 대상자에게 특정한 메시지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그 생각을 여러분의 지도자에게 이야기한다.
- 장애가 있거나 음식 알레르기가 있어서 성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회원들 알고 있는 경우, 어떤 편의를 제공하면 그들이 예배 시간에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지 자세한 정보를 알아낸다. 그 정보를 여러분의 지도자에게 이야기한다.<sup>1</sup>
- 만일 여러분의 성역 대상자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평생 또는 얼마간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경우, 그들이 집에서 성찬을 취할 수 있는지를 감독에게 문의한다. 성찬식 모임 동안 말씀을 기록해 전화나 이메일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전할 수도 있다.
- 성역 대상자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경우, 혹시 성찬식 모임 동안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다.
- 성역 대상자가 성찬식에 자주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이해심을 갖고 그들을 도움 방법을 생각해 본다. 그들에게 교통편이 필요하다면, 교회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들이 가족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과 함께 앉자고 권유할 수도 있다. 그들이 성찬식에서 자신들이 환영받고 있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도록 특별 초대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 단순한 행위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한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진 비 빙엄 자매는 성역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때때로 우리는 이웃에게 봉사한다는 말을 들으려면 위대하고 영웅적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봉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sup>2</sup>

벨기에의 자그마한 와드에 다니는 에비타는 스페인어를 쓰는 방문자와 회원들을 위해 교회 모임에서 종종 통역을 한다. 한번은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영어를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모국어는 스페인어였다. 그래서 에비타는 그가 더욱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성찬식 모임에서 조용히 통역을 해 주기로 했다.

에비타는 이렇게 말한다. “통역을 하면 제가 더 분주한 안식일을 보내게 되지요. 하지만 통역이 필요한지 물어보라는 영의 속삭임을 따르면 그들이 영을 느끼고 모임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기쁘고 따뜻해집니다.”





### 단순한 행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

- 여러분의 지도자와 이야기하여 성찬식 모임 동안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본다. 혹은 여러분이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을 아는 경우, 지도자들에게 알린다.
- 성찬식 모임이 시작될 때까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린다. 그렇게 하면, “상한 마음과 슬픈 심령을 지닌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sup>3</sup> 그들은 거룩한 곳에 깃든 경건함이 주는 평안이 필요하다.
- 위안이 더 필요할지 모르는 여러분의 성역 대상자를 위해 금식 주일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 여러분이 성찬식 모임 동안 옆에 같이 앉거나 가까이 앉으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기 위해 기도한다.

성찬식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고 영적인 양분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 성찬식 모임은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이 될 수 있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성찬식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 중 가장 성스럽고 가장 거룩한 모임”이라고 가르쳤다.<sup>4</sup> 따라서 성찬식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 특히 새로운 회원이나 오랜만에 참석하는 회원들이 환영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고 영적인 양분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사는 메라니아는 그녀가 다니는 와드에서 교회에 관해 알아보고 있던 한 자매와 친구가 되었다. 메라니아는 이렇게 말한다. “그 자매는 이제 저의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되었어요. 매주 성찬식에서 함께 앉을 수 있어서 기쁘고, 어떻게 지내는지, 또 제가 도울 만한 일이 있는지 그녀에게 항상 묻곤 합니다.” 얼마 후, 메라니아의 친구는 침례를 받았다. 와드 회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성찬식에 깃든 환영의 분위기는 그녀가 침례를 결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재활동 회원 또는 새로운 회원에게 성역을 베풀 수 있는 아이디어

- 여러분이 성찬식 모임에서 말씀을 할 예정인 경우, 친구들이나 가족, 또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라고 권유한다.
- 혼자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따뜻하게 맞아 준다. 여러분이 그들 옆에 앉아도 되는지 물어보거나, 그들에게 여러분 옆으로 와서 함께 앉자고 권유한다.
- 모임이 끝나면 다가오는 교회 활동이나 성전 방문, 또는 사교 활동에 성역 대상자와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다.
- 성역 대상자가 성찬식에 참석한 이후 한동안 뜸한 경우, 배운 내용에 관해 무슨 질문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용어나 이야기, 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질문해도 된다고 이야기해 준다. 필요한 경우 함께 답을 찾아볼 수 있다. ■



### 주

1. “장애가 있는 가족에게 봉사하는 4가지 방법”(온라인 전용 기사), 『리아호나』 2018년 6월호; 또는 이번 호 22쪽에 나오는 “교회에서 식품 알레르기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읽는 것을 고려해 본다.
2. 진 비 빙엄, “구주와 같이 성역을 베풀”,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4쪽.
3. 제프리 알 홀랜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46쪽.
4. Joseph Fielding Smith, in Conference Report, Oct. 1929, 60-61.





게리 이 스티븐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회복에서 신권이 차지하는 중대한 역할

신권이 다시 이 지상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회복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8** 29년 4월까지 조셉 스미스는 거의 십여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하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가 열네 살이던 1820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조셉의 집 근처 숲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5~17 참조) 천사 모로나이는 1823년에 조셉을 처음으로 방문한 뒤 훗날 몰몬경으로 출판될 고대 기록이 새겨진 판을 1827년에 조셉에게 줄 때까지 매년 그에게 와서 가르침과 조언을 주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30~54 참조)

하지만 조셉은 그 판들을 받은 이후 18개월 동안 지역 주민들의 괴롭힘과 자주 바뀌는 서기, 일부 원고의 분실 등으로 기록을 번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셉으로서는 실망스럽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58~62; 교리와 성약 3편 참조)

하지만 1829년 4월에 학교 교사인 올리버 카우드리가 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조셉의 전임 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몰몬경의 번역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습니다.

조셉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1828년 가을 동안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후, 1829년에는 몰몬경 번역에만 오롯이 집중했습니다. 잠시 동안, 조셉의 아내인 에머와 동생 새뮤얼이 서기로 수고해 주었습니다. 당시 올리버 카우드리는 뉴욕주에 있는 조셉의 친가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과 그 번역에 대해 들은 올리버는 흥미를 느끼고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조셉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이 들은 것들이 사실인지 알고자 주님께 간구했다.[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려 주셨다.”<sup>2</sup>

올리버는 조셉을 만나기 위해 즉시 225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하여 하모니로 갔습니다. 올리버는 조셉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4월에 만난 두 사람은 이를 뒤부터 빠른 속도로 몰몬경 번역 작업에 착수했는데, 놀랍게도 60일에서 65일 만에 번역을 거의 마쳤습니다. 6월 30일에는 모든 번역이 끝났습니다.

*신권의 회복은 이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였던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부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하늘에서 온 사자가 설명한 자신의 신성한 임무, 즉 고대 기록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거의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필수적인 역할을 완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한 것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1829년 봄에 있었던 일과 견줄 만큼 의미 있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올리버는 회복의 과정에서 이 놀라웠던 시기를 “결코 잊혀지지 않을 날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71, 각주) 몰몬경 번역이라는 기적 이후에 천사들이 곧 조셉과 올리버에게 나타나 신권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번역과 회복의 과정에서 많은 계시가 주어진 이 시기를 통해 조셉의 시야는 넓어지고 새로워졌으며, 1년 뒤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도록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 아론 신권의 회복

몰몬경을 번역하는 동안, 조셉과 올리버는 침례와 권세에 관한 여러 구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조셉은 “주님께서 몇 사람에게 거룩한 신권을 주실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sup>3</sup> 1829년 5월 15일, 조셉과 올리버는 “[자신]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려 달라고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사탕단풍나무숲의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sup>4</sup>

그러자 구속주의 음성이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으며, “한편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영광을 입고 내려와 간절히 바라던 말씀과 회개의 복음의 열쇠를 전해 주[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71, 각주) 천사는 자신이 요한, 즉 “신약전서에서 침례 요한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은 펠기세텍 신권의 열쇠를 지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

아래 행동한다고 말하였[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72)

조셉과 올리버가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부활한 요한이 그의 손을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얹고, 그들에게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닌]”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69; 또한 교리와 성약 13:1 참조) 그들은 “때가 되면” 더 많은 신권 권세를 부여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셉은 “교회의 첫 장로라 일컬어지고, 그(올리버 카우드리)는 둘째 장로라 일컬어”졌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72) 그들은 또한, 조셉이 먼저 올리버에게 침례를 준 다음, 올리버가 조셉에게 침례를 주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침례를 주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날 어느 시점에 두 사람은 침례를 받기 위해 사스케하나 강둑을 따라 “물가로 갔습니다.” 그들은



“주위에 이미 드러나 있던 꺾박의 기색으로 인하여 [그들이] 신권을 받고 침례 받은 경위를 불가불 비밀에 부쳐 두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74) 그 강은 물이 범람하는 봄 동안에는 선박이 꾸준히 운항하며 상업과 운송이 이루어지는 주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조셉과 올리버는 해 질 녘까지 기다렸거나 수심이 깊을 때를 이용하여 범람원에 있는 좀 더 한적한 곳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sup>5</sup>

서로에게 침례를 준 후, 조셉은 올리버를 아론 신권에 성임했습니다. 그런 다음, 천사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올리버가 조셉을 성임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침례 요한의 손을 통해 처음에 받은 성임을 그들이 침례를 받은 후 재확인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은 “그 축복들을 올바른 질서대로 재인봉”하기 위해서였다고 가르치셨습니다.<sup>6</sup>

###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과 올리버를 방문하여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한 일에 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회고록을 토대로 한 여러 해석에서는 이 사건이 1829년 봄, 아마도 5월이나 6월 말, 혹은 그 후의 수개월 사이에 일어났을 것으로 봅니다.<sup>7</sup> 침례 요한이 나타나 아론 신권을 회복했을 때와는 달리, 조셉과 올리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날짜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초기에 그들은 신권의 속성이나 그 등급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셉은 신권에 대해 차츰차츰 이해해 나갔습니다.

1830년부터 1835년까지, 신권 직분이 명확해졌으며 정원회, 평의회, 회장단, 감독단이 구성되었습니다. 1835년까지는 **멜기세덱 신권**이라는 용어도 “대신권”을 일컫는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교리와 성약 107:9; 84:19; 또한 교리와 성약 107:2~4 참조)

그래도 조셉은 그 일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설명을 남겼습니다. 1842년에 그는 “사스케하나 강에서, ... 하모니와 ... 콜스빌 사이의 광야에서 자신들이 왕국의 열쇠[를] ... 가졌음을 선포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음성”을 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28:20)

이를 통해 우리는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이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에 있던 스미스가에서 뉴욕주 콜스빌의 조셉 나이트 가족이 살던 마을까지 길게 뻗은 45킬로미터의 길 사이 어딘가에서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 가족은 교회의 초기 회원이자 조셉 스미스에게는 헌신적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문경을 번역하는 동안 종이와 양식을 제공했으며, 훗날 교회의 콜스빌 지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신권의 회복은 이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였던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부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조셉과 올리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서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의] 사도와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교리와 성약 27:12) 성임되었고,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여는 데 필요한 열쇠들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신권 의식을 집행할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1830년 4월에 교회를 조직하는 데 필수적인 “교회의 모든 영적 축복의 열쇠”를(교리와 성약 107:18) 받았으며, 만물을 그 적절한 질서대로 회복하기 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신권 권세로 집행되는 기적과 병 고침과 의식들을 통해 영적인 축복들이 임했습니다. 1836년에는 하늘에서 온 다른 사자들이 이스라엘의 집합과 성전 사업에 관한 신권 열쇠들을 전해 주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 신권 회복이 미친 영향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은 구주의 회복된 교회를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직접적인

우리 모두 현대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계속되고  
 있는 복음의 회복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신성한 권세”라고 가르치셨습니다.<sup>8</sup> 신권이 다시 지상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회복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신권을 통해 의식 집행이 승인되며, 지상에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기 위한 체계가 마련됩니다.

조셉은 1830년 4월 6일에 교회를 공식적으로 조직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에 걸친 기간 동안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교회 회장의 지시 아래, 신권 열쇠들이 전 세계 현지 지도자들에게 위임되어 “땅 끝까지 복음이 굴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65:2)

신권 회복은 이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였던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부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서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즉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17)

1829년 5월에 침례 요한이 방문하기 전까지 조셉은 물문경 번역에 집중했습니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되면서, 그는 자신의 부름에 훨씬 많은 것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서 권세를 부여받음으로써 조셉은 “선견자, 번역자, 선지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더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교리와 성약 21:1)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1932~2017) 장로님은 신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습니다. “만일 신권 권능이 지상에 없다면, 대적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마음껏 돌아다니며 맹위를 떨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깨우치는 성신의 은사도 없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는 선지자도 없을 것이며, 성스럽고 영원한 성약을 맺을 수 있는 성전도 없고, 축복하거나 침례할 권세도, 치유하거나 위안을 줄 권세도 없을 것입니다. 신권 권능 없이는,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2:1~3 참조) 빛도 소망도 없이 오로지 어둠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sup>9</sup>

신권 의식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사업에서 중심이 됩니다.(모세서 1:39) 침례와 확인, 성전

엔도우먼트,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회장 양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성전에서 가족들을 묶고 인봉하는 능력은 교회 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권 권세와 열쇠들을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속되고 있는 회복

신권 권세는 계속되고 있는 교회의 회복에 여러분이 참여하도록 어떻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성스러운 숲에서도, 쿠모라산에서 모로나이를 통해서도, 교회를 조직하는 모임에서도 조셉에게 교리나 의식 또는 지침을 한꺼번에 다 밝히거나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목적과 시간에 맞게 오늘날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계시를 내려 주시듯이, 조셉에게도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니파이후서 28:30) 계시해 주셨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시절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주님을 대변해 왔으며 주님의 뜻을 계속 밝혀 왔습니다. 선지자들은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시기에 닥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도를 받습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은 우리 모두가 “회복의 과정의 증인”이라고 선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겨우 시작 부분만을 보신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이 무척이나 많습니다.”<sup>10</sup>

### 회복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현대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계속되고 있는 복음 회복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더 높고 거룩한 차원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그에 포함되는 일입니다.<sup>11</sup> 또한, 우리 각자가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강화하며, 각자의 필요 사항에 맞게 개인 및 가족이

가정에서 보내는 저녁 시간 등 개인적인 예배를 발전시킴으로써 복음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sup>12</sup>

우리는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일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구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sup>13</sup> 우리는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도록 일요일 예배 모임과 가정에서 더 잘 할 수 있습니다.<sup>14</sup> 매일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데 필요한 영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성신에 더욱 민감하게 주파수를 맞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sup>15</sup>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흥미진진한 날들을 위해 우리를 예비하시는 동안, 하늘은 계속 열려 있으며,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이 많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신권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고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현대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은 주님의 왕국을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신권을 사용할 수 있기에, 교회와 교회 회원들이 매일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최후의 경륜의 시대에 침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난 것에 대해, 그리고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된 것에 대해 매일 감사를 포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

1. Joseph Smith, History, 1838–1856, vol. A-1, created June 11, 1839–Aug. 24, 1843, 15, Church History Library.
2. Joseph Smith, in *History of the Church*, 1:35.
3. Oliver Cowdery, letter to W. W. Phelps, in *Latter Day Saint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199.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85쪽. 오랜 세월, 사람들은 그들이 사스케하나 강둑으로 갔다고 여겼으나, 동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조셉의 소유지 북쪽 끝에 있던 사탕단풍나무숲으로 갔다고 한다.(see Mark Lyman Staker, “Where Was the Aaronic Priesthood Restored? Identifying the Location of John the Baptist’s Appearance, May 15, 1829,” *Mormon Historical Studies* 12, no. 2 [Fall 2011]: 142–59)
5. See Mark L. Staker, “Where Was the Aaronic Priesthood Restored?” 153.
6. Joseph Fielding Smith, *Doctrines of Salvation*, comp. Bruce R. McConkie (1955), 1:197.
7. See Larry C. Porter, “Dating the Restoration of the Melchizedek Priesthood,” *Ensign*, June 1979, 5–9; Larry C. Porter, “The Restoration of the Aaronic and Melchizedek Priesthoods,” *Ensign*, Dec. 1996, 42–44.
8. David O. McKay, “The Mission of the Church and Its Members,” *Improvement Era*, Nov. 1956, 781.
9. 로버트 디 헤일즈, 「신권의 축복」,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32쪽.
10. “Latter-day Saint Prophet, Wife and Apostle Share Insights of Global Ministry,”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
11.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행함”,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68~70, 75쪽; 러셀 엠 넬슨, “성역”,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0쪽; 헨리 비 아이어링, “영감받은 성역”,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61~64쪽; 진 비 빙엄, “구주와 같이 성역을 베풀”,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4~106쪽 참조.
12. 러셀 엠 넬슨, “개회 말씀”,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6~8쪽; 쿠엔틴 엘 쿡,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고 지속적인 개심”,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8~12쪽 참조.
13.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ChurchofJesusChrist.org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의 집합에는 자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69~70쪽 참조.
14. 러셀 엠 넬슨,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29~132쪽 참조.
15.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3~96쪽 참조.





##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는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을까?

---

아들의 여덟 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아이가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 케이티 에드나 스티드

**우** 리 아들 데이비드가 여덟 살이 될 때까지는 일 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남편과 나는 데이비드가 성스러운 침례 성약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랐다. 이 말은 곧 물문경을 읽고, 침례 성약을 공부하고, 침례 접견 질문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데이비드의 누나를 준비시키면서 이미 다 해 본 일이었지만, 데이비드는 자체증이 있었으므로 침례를 결정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았다.

물론 데이비드의 준비를 돕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준비 과정 내내 우리 마음속을 헤집던 질문들이 있었다. 데이비드가 과연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데이비드는 준비되어 있을까? 꼭 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자신이 무엇을 약속하게 될지 그 아이가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둔 많은 부모들이 그러듯이 우리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교리적인 통찰과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게 되었다.

### 책임질 수 있는 연령,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교리와 성약 68편 2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나이 여덟 살일 때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하느니라.”

이 성구만 보면, 누구든 여덟 살이 되면 침례받을 준비가 된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경전에는 이러한 가르침도 나온다.

“어린아이는 ...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나니 ...

그들이 내 앞에서 책임질 수 있게 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그러하도다.]”(교리와 성약 29:46~47; 또한 모로나이서 8:7~22 참조)

데이비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남편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했다.

교회 정책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란 그 개인의 소망과 이해의 수준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만약 데이비드가 합당하고 침례를 받고 싶어 하며,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이 맞았다.

우리는 또한 데이비드가 장애 때문에 지적 능력이 어린 아이 수준밖에 안 된다면, 그에게는 책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구원 의식을 받을 필요 또한 없다는 것을 배웠다.(『지침서 제1권: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2010], 16.1.8 참조; 교회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는 회원들은 감독과 상의할 수 있다.)

사실, 데이비드의 지적 능력은 꽤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계속해서 데이비드가 책임질 수 있는 적절한 상태에 도달했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했고, 평안을 가져다줄 지시가 주어지기를 바랐다.

### 장애와 무죄한 상태

나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둔 부모들 중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책임질 수 없는 이들은 무죄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가르침에서 큰 위안을 얻는 몇몇 사람들을 알고 있다.

“어린이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으며 ... 구속의 능력이 율법을 갖지 아니한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 그러한 자에게 침례란 무익한 것이요.”(모로나이사서 8:22)

선지자 조셉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죽은 어린이들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죽은 모든 어린이가 하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 받음을 보았느니라.”(교리와 성약 137:10)

나는 이러한 개개인에게는 현세에서의 침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나는 또한 데이비드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도 알았다.

### 신성한 인도를 구하며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도 여덟 살 이상의 정신 수준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이들은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침례와 확인을 받을 수 있다.〔지침서 제1권, 16.3.5 참조〕 그렇지 않은 개인들은 책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남편과 나는 데이비드가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는지와 관련해서 영감받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리 아들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판사”인 감독님과 더불어 상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교리와 성약 107:76 참조)

엘마의 다음 말씀은 내게 큰 평안을 가져다주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 주께서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와 성약을 맺었다는 그의 앞에서의 증거로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음에 너희가 꺼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모사이아서 18:8, 10)

우리 나침의 준비를 모두 마치고, 가정과 초등학교에서 필요한 공과를 모두 가르친 후, 나는 데이비드에게 침례 접견에서 받게 될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반응을 보니, 때로는 질문을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또 때로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같았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마침내 영이 내 마음에 이렇게 속삭였다. ‘데이비드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게 어떻겠니?’

나는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물었다. “데이비드, 침례를 받고 싶니?”

데이비드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왜 침례를 받고 싶은 건지 묻자 데이비드는 이렇게 답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요.”

평안과 확신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순간, 나는 설사 데이비드가 모든 질문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이미 침례와 확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아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소망을 인식하고 있었다.

데이비드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된 그날은 사랑과 우정과 평안이 가득했다. 가족들과 워드 회원들, 학교 친구들에게 데이비드의 학교 선생님들까지, 침례실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예수님을 따르고 침례를 받기로 한 데이비드의 모범은 그날 여러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가족은 더욱 강해졌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아들 데이비드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배울 기회를 얻은 덕분이었다.(요한복음 9:3 참조)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 장애가 있는 회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지도자들이 사랑을 품고 구주의 모범을 따라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돕는다면, 장애가 있는 회원들과 그 가족들은 구주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신이 중요한 지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고린도전서 12:12, 18)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때로 우리는 서로의 다른 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정중하게 질문한다면, 상대방은 자기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요청에 고마워할 것이다. 사랑을 담은 방식으로 질문하기 위해 준비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형제님(자매님)께서 교회에서 더 의미 있는 경험을 하시도록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보통으로 어떤 회원의 장애에 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장애를 가진 본인과 그 가족이다.
- 2. 이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장애가 있는 회원들과 더불어 그들의 장애에 대해 상의한 후, 다른 사람과 그런 내용을 공유해도 괜찮은지 의논한다. 그런 다음 적절하다면, 와드의 지도자들과 다른 회원들이 그 개인의 장애와 필요 사항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하면 더 큰 연민과 이해심을 키울 수 있고, 그들을 도울 방법에 관해 영감을 얻을 수도 있다.
- 3. 지원을 제공한다.** 모두가 배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단히 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예를 들어, 대답할 시간을 좀 더 주고, 자막이 있는 영상을 사용하고, 눈과 귀가 불편한 사람들이 더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고, 공과를 가르칠 때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와드 혹은 스테이크의 장애 전문가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물어볼 수도 있다.
- 4. 봉사할 기회를 마련한다.** 장애가 있는 개인과 그들의 보호자를 만나 그들이 가진 기술과 재능을 알아본다. 그런 후, 그들이 봉사할 방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아본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 5. 사랑으로 다가간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다음 말씀에서 드러나는 열린 태도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회 회원인 우리 모두는 이 여로에 있습니다. ...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모든 새로운 회원들이 알고, 모든 오래된 회원들이 기억하길 바라는 것들”, 『리아호나』, 2006년 10월호, 10쪽) 교회의 모든 자원 가운데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언제나 서로에게 사랑과 우애로 성역을 베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 교회에서 식품 알레르기 문제를 다루는 방법



리사 앤 톰슨

**20** 17년 1월의 추운 밤에 열린 청소년 활동을 기점으로 소렌슨 가족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테리와 지널린의 아들 태너는 14살이었다. 합동으로 열린 활동 모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한 지도자가 남아 있는 다과를 내놓았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태너는 쿠키를 하나 집어서 베어 물었다. 그는 그 쿠키를 먹지 말았어야 했다. 땅콩버터 쿠키였기 때문이었다.

테리는 말한다. “태너는 평소에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태너는 집으로 간신히 돌아왔다. 집은 집회소 바로 길 건너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의식을 잃었고, 호흡이 끊어졌다.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이 태너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불행히도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태너는 식품 알레르기로 그날 밤 세상을 떠났다.

## 전 세계적인 문제

전 세계의 어린이 중 약 5%가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sup>1</sup> 미국에서는 성인 중 약 4%가, 아동 중에는 최대 8%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며<sup>2</sup> 유럽 및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치로 보고되고 있다.<sup>3</sup> 200명 규모의 와드라면 약 8명의 성인이, 50명 규모의 초등학교에서는 4명의 아동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잠재적인 알레르기 항원으로 확인된 식품은 170개 이상인데, 미국의 경우 우유, 계란, 땅콩, 견과류, 밀, 대두, 생선, 갑각류의 “8대 식품”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sup>4</sup> 지역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의 주범이 되는 식품으로는 인도의 병아리콩, 한국과 일본의 메밀, 태국 북부의 개미알 등이 있다. 우유와 계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만연한 식품 알레르기 항원에 속한다.<sup>5</sup>

알레르기 반응은 신체의 면역 체계가 어떤 물질을 위협으로



인식하여 과잉으로 반응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반응 중 가장 심한 것은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과민성 쇼크)인데, 이는 면역 체계의 급격한 반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sup>6</sup> 증상으로는 입안이 아리거나 가렵고, 입술, 얼굴, 혀 또는 기타 신체 부위가 부어오르고,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구토를 하고, 기도가 수축하고, 맥박이 빨라지며 어지럽고, 쇼크가 나타난다.<sup>7</sup>

알레르기 전문의인 교회 회원 조나단 울슨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알레르기는 최소 교회에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일어난 것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람은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람보다 더 빨리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식품 알레르기 치료법들이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당장은 식품 알레르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울슨 박사는 치료법은 여전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을 피하고 아나필락시스를 인식하고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사랑을 표현하는 매개체인 음식

음식은 보통 모임의 꽃이며, 문화와 전통, 명절을 상징한다. 음식은 육신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사람들을 모으고 친해지도록 권유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특히 교회에서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공과 시간에 출석을 장려하거나 공과를 강화하기 위해 과자를 나눈다. 성도들은 교회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람은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람보다 더 빨리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한 가지씩 해 와서 나누어 먹거나, 요리 솜씨 경연이나 기타 활동을 하며 친목을 다진다. 진심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를 위해, 그리고 장례식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문 앞에 과자를 가져다 놓기도 한다.

심지어 구주께서도 당신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오천 명을 먹이지 않았던가.<sup>8</sup>

이러한 예는 식품 알레르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왜 일부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지, 특히나 교회에서 그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를 설명해 준다. 음식은 보통 사랑을 표현한다. 그러나 와드 회원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유의하는 것을 성역을 행하는 기회로 여긴다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배려한 조치나, 심지어는 음식이 없는 것까지도 사랑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성스럽고도 안전한 성찬식을 마련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의 만찬인 성찬(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의 신성한 초점입니다. ...

... 주님이 제정하신 이 시간은 우리의 일주일 중 가장

자세한 사항은 [disability.ChurchofJesusChrist.org](http://disability.ChurchofJesusChris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침대로만 한다면 대부분의 회원은 안전하게 성찬을 들 수 있다.

알레르기가 있는 회원은 성찬을 대체할 적합한 대안을 감독과

## 알레르기가 있는 회원은 성찬 빵으로 사용할 안전한 대체품을 감독과 상의할 수 있다.



성스러운 시간입니다.”<sup>9</sup>

그러나 최근 교회가 발표한 식품 알레르기와 교차 오염 교육에 관한 지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식품 알레르기와 식품에 대한 반응은 한 사람의 ... 정서적 건강 및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는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10</sup>

교회의 식품 알레르기 지침에는 성찬 빵을 안전하게 제공하는 방법에 더하여 성찬대에서 간접 접촉을 피하는 방법이 나온다.(더

상의할 수 있다. 그런 회원은 자신이 취할 알레르기 유발 항원이 없는 빵을 비닐 봉지에 밀봉해 가져올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성찬식에 가져오는 음식이나 간식 때문에도 곤란을 겪는다. 일부 알레르기 반응은 항원을 들이마시거나 만지기만 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이들은 그런 음식이 있으면 자리를 바꾸거나 복도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성찬식 모임에 참석한다.

2015년 4월 훈련 모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였던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영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성찬식 모임을 위해 1주일 168시간 중에서 소중한 1시간을 분명 휴대 전화와 아이패드, 게임, 음식 없이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sup>11</sup>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음식을 꼭 가져와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모임 일정이 단축되었으므로, 우리는 벨라드 회장의 제안을 고려하여 성찬식 모임에 음식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다.

### 서로의 짐을 나누기 위해

식품 알레르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 있듯이, 그것은 좋게든 나쁘게든 영적으로도 심오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프란체스카의 딸은 우유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 딸이 참석하는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생일을 맞은 어린이를 위해 집에서 만든 컵케이크를 공과 시간에 가져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프란체스카는 생일이 있을 때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컵케이크를 가져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그 교사는 거절했고, 그 대신 생일 다과를 차릴 때마다 6살짜리 꼬마 소녀를 복도에 나가 앉게 했다.

프란체스카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 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 교사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처럼 되라’고, 모두를 품어 주라고 가르치는 대신 소외시키라고 가르친 거죠.”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가족과 대화할 때 소속감과 소외는 흔히 다루게 되는 주제이다. 땅콩과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신시아의 9살짜리 아들은 일일 캠프에 참석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캠프 당일 아침에 한 지도자는 신시아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가 캠프에 참석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아이의 알레르기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신시아는 그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전화를 끊고서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들이 다시 한번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게 서러웠죠.”

교회의 장에 전문 관리자인 케이트 에드나 스티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주께서는 아흔아홉을 두고 하나를 찾으려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를 알아보고 배려하는 그런 모범을 기억해야 합니다.”

### 우리가 도울 수 있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또 안전하면서도 모두가 환영받는 교회 모임을 만들기 위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회원들과 소속 와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식품 알레르기 문제를 겪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알레르기 문제가 있는 가족들은 지도자와 교사에게 자신들의 필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고, 지도자와 교사가 다른 사람들로 바뀌면 그들에게 다시 설명할 수 있다.

### 활동이나 공과를 계획할 때 고려할 질문

1. 공과나 활동에 음식을 활용하는 것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내 메시지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가? 공과나 활동에서 음식을 제외해도 되는가?
2. 음식이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성역을 행할 수 있을까? 참여자 모두에게 안전하면서도 내가 목적하는 바에 부응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가? 개인이나 부모에게 안전한 다과를 제공해 달라고, 또는 안전한 대체품을 찾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가?
3. 모든 사람에게 괜찮은 음식을 제공할 방법이 없다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길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그들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가?





그들은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식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메뉴와 활동을 계획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들은 간단한 인명 구조법과 응급 대처법을 알려 줄 수 있다. 그들은 회원들이 두려워하고

찾아와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고, 공과실에서 저에게 성찬을 집행하라는 감독님의 특별 허가를 받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작은 방에서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할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주의 사랑을 매우 강하게 느꼈고, 이 문제로 제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는지 그분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교회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 하는 그런 모습들은 서로의 짐을 기꺼이 나누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 줍니다.”

**“구주께서는 아흔아홉을 두고  
하나를 찾으려 하셨습니다.  
그 하나를 알아보고 배려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끼리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해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인내하며 회원들을 교육하고, 알레르기를 가진 이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안전한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와드가 감당하고 지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편의성을 요청해야 한다.

**와드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와드 회원들은 개개인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다. 와드 회원들은 어린이에게 음식을 줄 때 부모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활동이나 공과에 음식이 필요할 경우, 교사와 지도자는 개인과 부모에게 그 음식이 안전한지 물어볼 수 있다. 와드 회원들은 개인과 부모를 초대하여 함께 참여하고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잔은 여러 가지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녀는 자기 와드에 있는 제사들이 성찬을 준비할 때 보여 주는 민감함에 특히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안전하게 성찬을 취하도록 해 준 청년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정말 겸손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성찬이 그녀에게만 전달되지 않은 적이 있었다. 성찬을 준비하던 제사들은 수잔의 빵이 성찬대 위에 있던 다른 빵과 접촉되어 더 이상 먹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수잔은 이렇게 말한다. “제사들은 성찬식을 마친 후에 저를



프란체스카의 딸은 현재 청녀다. 그녀의 청녀 회장은 이 가족이 진 짐을 도우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청녀가 안전과 예배 중 하나를 택하게끔 내몰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기도했고, 이 가족을 포용하고 어떤 면에서도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들은 프란체스카의 딸이 안전하게 참석할 수



있는 1박 청소년 대회를 계획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아들였다. 프란체스카는 메뉴를 계획하고 식품 구입을 도왔다. 청남들은 철판 요리를 하기 전에 철판을 깨끗이 씻었다.

프란체스카는 이렇게 말한다. “정말 좋았어요! 눈물이 났고, 사람들의 친절하고 포용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제 딸도 그랬고요.”

###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태너의 가족은 아들을 잃은 이후 크고 작은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

그들이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다.

태너의 아버지 테리는 이렇게 말한다.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 무책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주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도 그냥 아이들에게요. 방심하게 되는 건 눈 깜짝할 사이거든요.”

그러나 성역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방심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울슨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성역은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에 부응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 사항에 기초하며, 그들에게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 제1보좌인 웨런 유뱅크 자매는 이렇게 가르쳤다.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하여 너희 중 아무도 가버리지 않게 하느니라.’ ... 서로에게 참된 사랑을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후기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요구되는 일입니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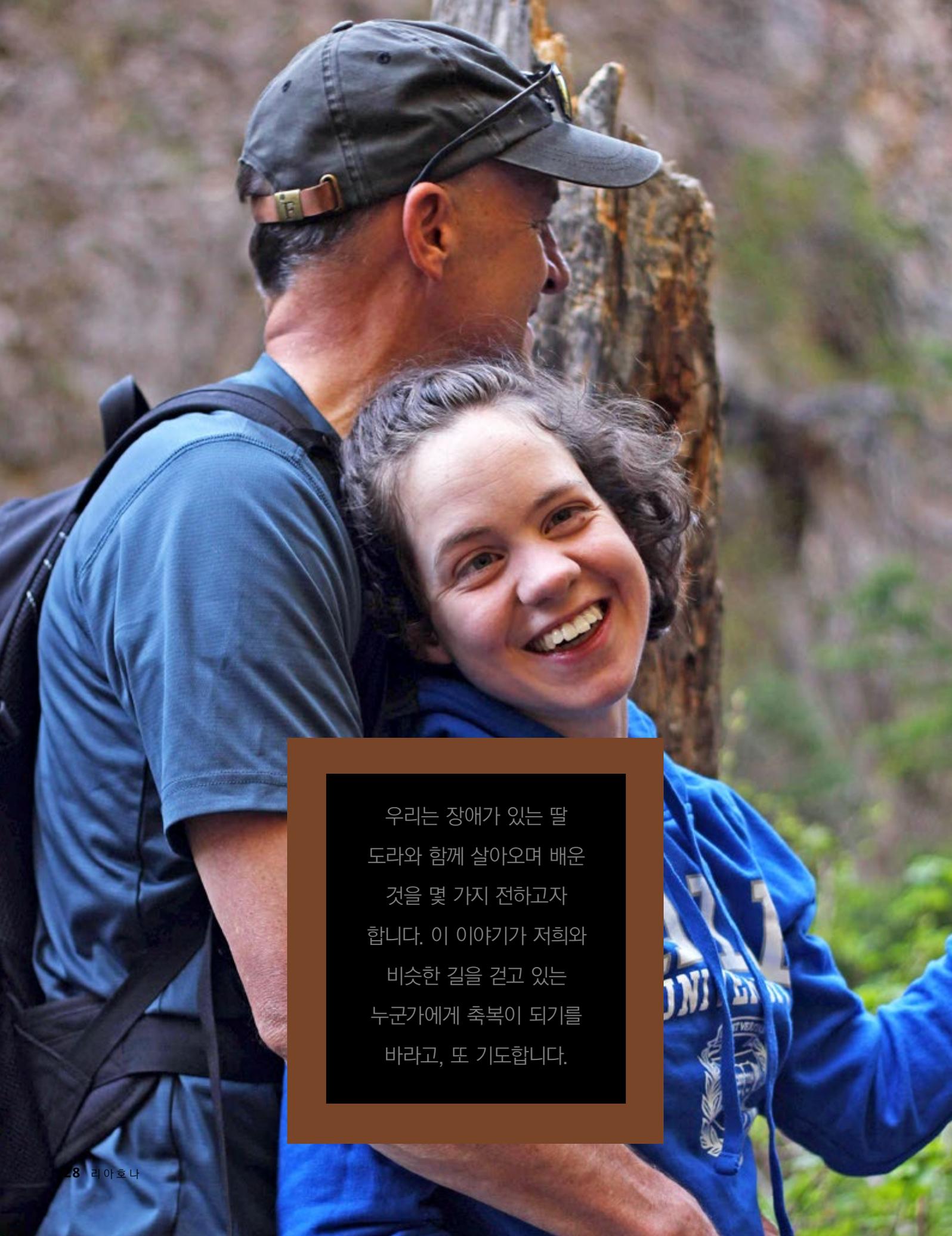
프란체스카는 자신의 아이가 식품 알레르기 문제를 겪게 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힘든 노력을 기울인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족, 교사, 지도자는 교회를 모든 사람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깨닫게 되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유하여 당신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당신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장애를 계속 가지고 있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친절을 배우고 당신처럼 되는 법을 배워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 ■

### 주

1. See “Food Allergies: Global Burden, Causes, Treatment, Prevention and Public Policy” (consensus study by the U.S. Institute of Medicine, 2017),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2. See Wenyin Loh and Mimi L. K. Tang, “The Epidemiology of Food Allergy in the Global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 15, no. 9 (Sept. 18, 2018), 2043, [ncbi.nlm.nih.gov/pmc/articles/PMC6163515](https://ncbi.nlm.nih.gov/pmc/articles/PMC6163515).
3. See Alison Joanne Lee, Meera Thalayasingam, and Bee Wah Lee, “Food Allergy in Asia: How Does It Compare?” *Asia Pacific Allergy*, vol. 3, no. 1 (Jan. 2013), 3–14, [ncbi.nlm.nih.gov/pmc/articles/PMC3563019/](https://ncbi.nlm.nih.gov/pmc/articles/PMC3563019/); FARE: Food Allergy Research & Education. “Food Allergy Facts and Statistics for the U.S.,” [foodallergy.org/sites/default/files/migrated-files/file/Final-FARE-Food-Allergy-Facts-Statistics.pdf](https://foodallergy.org/sites/default/files/migrated-files/file/Final-FARE-Food-Allergy-Facts-Statistics.pdf). 일부 식품 알레르기는 자라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성인기보다 아동기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See FARE, “Food Allergy Facts and Statistics for the U.S.”
5. See Loh and Tang, “The Epidemiology of Food Allergy in the Global Context.”
6. See “Signs and Symptoms,” [anaphylaxis.org.uk/hcp/what-is-anaphylaxis/signs-and-symptoms](https://anaphylaxis.org.uk/hcp/what-is-anaphylaxis/signs-and-symptoms).
7. See Mayo Clinic, “Food allergy,” [mayoclinic.org](https://mayoclinic.org).
8. 마가복음 6:37-44; 누가복음 9:10-17 참조.
9. 제프리 알 홀런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45, 46쪽.
10. “Food Allergies,” in the Policies and Guidelines section of disability.ChurchofJesusChrist.org.
11. M. Russell Ballard, in “April 2015: Sabbath Day Observance” (video), [ChurchofJesusChrist.org/media-library](https://ChurchofJesusChrist.org/media-library).
12. 웨런 유뱅크, “그리스도: 어둠에 비치는 빛,”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74쪽, 강조체 추가.



우리는 장애가 있는 딸  
도라와 함께 살아오며 배운  
것을 몇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폴 비 파이버 장로  
칠십인 정원희  
멜리사 티 파이버 자매

# 장애와 특별한 교훈

**제** 왕절개 수술을 통해 딸 도라가 태어난 후, 우리는 그 이후로 며칠을 지내면서 도라가 뭔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3주 후에 도라가 의사의 검진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실려 가고 나서야 도라의 출생이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문가들이 도라의 상태를 진단하려 노력하는 몇 주와 몇 달을 겪으며 우리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를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제시될 때마다 걱정거리가 따랐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한 가지 진단이 나오면 “아,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도라를 잃을 수는 없어요.”라고 했다가 또 다른 진단이 나오면 “만약 도라의 병명이 그게 맞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말했습니다.

진단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상황에 끝을 알리고

미래는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하지만, 기대에 부풀게 하거나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으로 한계를 그어 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의사들이 온갖 이론을 검토하고 검사를 시도했지만 도라의 상태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었던 점에 감사로 느낍니다.

의료진은 우리에게 “도라가 생리학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정상이지만, 근육 수축력이 약하고 경련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8년간을 그 말에서 오는 불확실성, 복잡함, 역경, 그리고 기쁨과 가능성까지 그 모두를 안고 살았습니다. 어떤 길을 가게 될지도 몰랐지만, 구체적인 의학적 진단에 따라 한정되는 느낌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라에 대해 생각할 때, 도라의 한계보다는 도라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정의하는 법

지난 세월, 도라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라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떤 장애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음, 혼자서는 말하지도 걷지도 먹지도 입지도 못한달까요? 하지만 도라는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아이예요.”

우리는 도라를 장애나 한계로 정의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도라가 잘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편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도라는 잘 웃습니다. 도라의 웃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한번은 공항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멈춰 세운 후, 도라의 웃음이 발하는 빛에 무척 감동했다며 도라와 사진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묻는 적도 있습니다.

도라는 누군가를 안아 줄 수 있습니다. 운이 좋게 도라의 포옹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한번은 운동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는데, 도라가 자연스럽게 다가와 길가의 노숙인을 안아 준 적이 있습니다. 표정을 보니, 그 사람에게 그날 있었던 일 중 가장 멋진 일이 도라의 그 포옹이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도라는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 줍니다. 도라가 여러분과 한순간이라도 마주 본다면 여러분은 사랑과 감미로움에 취해 눈물이 고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사들을



## 연약한 육신, 신성한 속명



“신성한 속명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완벽한 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 훌륭한 일부 영들은 연약한 몸에 거합니다.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이유는 그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충실하고 순종적인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우리의 몸: 소중히 여겨야 할 위대한 선물”, 『리아호나』, 2019년 8월호, 52, 53쪽.

가진 도라를 우리가 왜 굳이 “장애가 있는” 아이로만 정의하겠습니까? 도라는 자신의 존재 그대로 자기가 할 일들을 함으로써 수백 명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 하루씩 하루씩

자녀가 부모에게 평생 의존해야 하는 경우, 부모는 큰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계속해서 신체적, 정서적, 심지어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감은 더욱 커집니다. 아이에게 매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보살피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높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처럼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오늘은 이것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해야 할 일과 그 기회들에만 집중하면 주어진 과제가 좀 더 해 볼 만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하루씩 하루씩 살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하루 동안 누릴 기쁨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성장하는 능력

지상에 보내진 영은 모두

“성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sup>1</sup> 우리는 모두 자기 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으로 선택의지를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누군가를 보살피는 사람들은 보살핌 아래에 놓인 이들이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성장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봉사할 기회를 얻도록 돕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치 도라가 포옹을 해 주고 웃음을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능력을 발휘하고, 가능하면 치료와 활동을 통해 이를 신장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계속 좌절을 맞본다면, 우리가 너무 심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통해 가능하고 적절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소해 보이는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형외과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의가 도라는 절대 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년 간의 기도와 노력 끝에 도라는 도움을 받으면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라의 상태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도라가 성장하고 삶에서 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작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 치유를 받지 않을 신앙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어려움을 안고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질 때 **왜지?** 하고 의문을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자연스레 그 아이의 상태가 치유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가능할지를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라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신앙이 있으나, 그분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도라를 우리에게 보내신 데는 그분 나름의 목적이 있으셨고, 그분께서 원하실 때에 도라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은 완전한 치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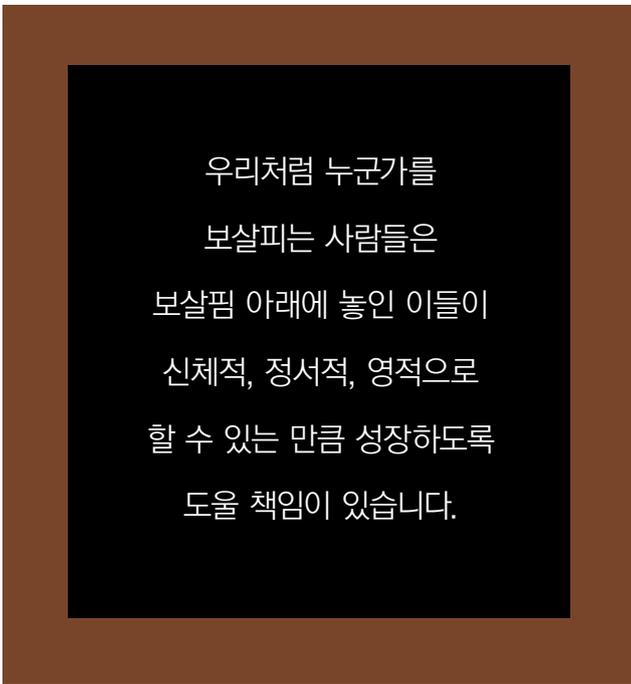
때, 즉 부활까지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소중한 이들의 치유를 지금 곧바로 실행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는 것만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도라는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보내졌고, 우리는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시는지를 여쭙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거지?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묻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그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지? ... 진짜 확신을 갖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소서’라거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최대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고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sup>2</sup>

우리는 종종 구주께서 지상 성역 동안 치유해 주셨던 자녀들의 부모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그 부모들도 자녀가 어떤 목적으로 그들에게 보내졌는지 알고 싶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치유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 구주께서 그분의 치유하는 권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일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 부모들은 이

사실을 구주께서 그 자녀들을 치유하신 후에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치유될 날이 오리라는 신앙이 있습니다.<sup>3</sup>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



주  
 1.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보내신 모든 정신과 영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210쪽)  
 2. 리차드 지 스코트, “주님을 신뢰함”,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6~17쪽, 번역 수정  
 3. “치유받지 않을 신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으려면, 다음 기사를 참고한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주님의 뜻과 그분이 정하신 시기를 받아들이는 것”, 『리아호나』, 2016년 8월호, 16~23쪽.

## 모두를 위한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학교 벽에서 보는 것은 상상도 못해 본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일찍 잠에서 깬다. 학교 교사인 나는 평소 내 일을 정말 사랑했지만, 그날만큼은 몸이 찌뿌듯했던 탓에 마치 밤이 된 듯 도로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 가 눕고만 싶었다.

내 근무지인 고등학교에 도착한 후, 나는 일을 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다. 곧 수학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도 머리도 멍하고 축 늘어지는 것만 같았다. 온갖 나쁜 기분이 다 들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화장실에 들르기로 했다. 이따금 화장실에는 학생들과 직원들이 보면 도움이 될 내용의

종이 벽보 같은 게 붙어 있을 때가 있다. 그날 무심결에 눈에 띈 벽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멋진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닌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님이시라는 걸 발견한 나는 깜짝 놀랐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학교 벽에서 보는 것은 상상도 못해 본 일이었다. 내가 사는 곳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소도시였고, 나는 이 학교의 몇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중 한 명이었다. 어쩌면 내가 유일할 수도 있었다. 몬슨 회장님이 하신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할 사람은 나 외에 거의 없을 것이었다. 그분은 내가 오랫동안 선지자로서 지지해 온 분이셨다. 마치 이것이 나를 위한 메시지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 덕분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내게 간증이 있다는 것에 가슴 가득 감사함을 느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에워쌌다.

벽보를 떼서 온종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그 좋은 느낌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불현듯 이런 생각도 들었다. 몬슨 회장님은 나와 교회의 회원들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선지자였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현재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주시는 말씀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선지자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모두를 돕고 강화한다. 나는 휴대전화로 그 문구를 찍은 뒤, 그 메시지가 필요할 다른 누군가를 위해 벽보를 남겨 두고 나왔다.

내가 가는 길목에 이 메시지를 남겨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싶다. 구주께 순종하고 그분을 가까이할 때, 어둠에 싸여 길을 잃는 날에도 나는 빛을 받을 수 있다. ■

캐서린 퍼게슨,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성도의 빛』, 1999년 7월호, 69쪽.



# “저는 제 신앙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직장에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내 영적인 복리를 위협하는 직장에 계속 남아 있을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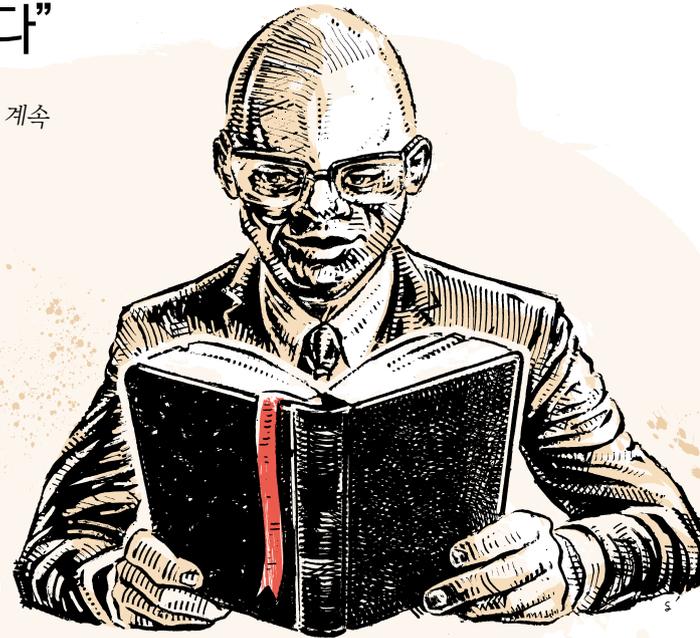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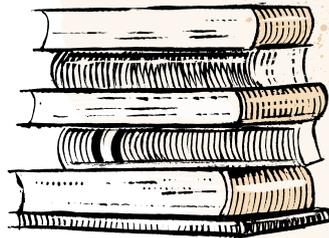
**큰** 도서관의 보조 책임자로 고용되고 얼마 후, 우리 부서는 37,000권의 책을 디지털화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어느 날, 나는 상사의 사무실로 호출이 되었다.

“에두아르드, 내가 우리 도서관의 장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미국에 소개하고 새로운 자료들을 구해 오라는 제안을 받았다네. 믿음직한 동료도 한 명 데려오라더군. 난 자네를 신뢰하지만, 자네가 다니는 교회는 신뢰하지 않아. 자네가 교회를 버린다면 나와 함께 갈 수 있네.”

그러고서 그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서 나를 방에서 내보냈다.

그날 저녁, 나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아내는 신앙을 가지라며 나를 격려했다. 이튿날, 나는 상사에게 내 신앙을 고수하겠노라고 말했고, 그는 화를 내며 출장은 혼자 가겠다고 답했다.

일 년 뒤, 나는 도서관 재원 확보 및 자료 취득, 경영에 관한 훈련을 받기 위해 프랑스에 다녀올 기회가 생겼다. 상사가 결재만 해 주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는 내가 신앙을 저버려야만 허락을 하겠다고 나왔다. 나는 다시 한번 거절했다. 그러자 상사는 관련 서류를 찢어서 내 얼굴로 냅다 던져 버렸다. 얼마



후, 그가 다시 나를 찾았다.

“내가 출장을 또 가게 되었는데, 자네도 같이 갈 수 있어. 단, 조건은 같아. 난 자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는 절대로 동행하지 않을 거거든.”

나는 대답했다. “저는 제 신앙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런 대꾸 없이 가 버렸다. 곧 그는 동료들에게 내 혐담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난 여러 번 기회를 줬어. 그런데 그 친구는 신앙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날려 버리더군. 바보 같은 인간이지.”

그때부터 나는 직장에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 버렸다. 어느 날 저녁, 이 문제로 골몰하던 중에 성경을 읽었는데, 이 부분을 읽게 되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마태복음 5:29)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는데, 내 영적인 복리를 위협하는 직장에 계속 남아 있을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다음 날,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금 나는 그때 한 선택에 대해 환희를 느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용기를 내어 직에서의 조롱과 일시적인 실직 기간을 견뎠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나는 전에는 불가능했던 기회들을 누리고 있다. 주님께서는 나를 축복해 주셨다. 나를 향한 주님의 친절과 사랑에 감사드린다. ■

에두아르드 긴두, 콩고민주공화국 카토카

## 우리는 두 번째 기적이 필요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우리는 이미 한 차례 기적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했다.

**임** 신 24주차일 때 아내 세라는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나는 아내에게 축복을 준 뒤 출근길에 나섰다. 그리고 나서 근무 중에 아내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세라는 집으로 와서 자기를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우리는 “아기가 금방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겨우 임신 24주차였기 때문에 아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면 응급 제왕 절개 수술을 해야 했다.

담당 의사가 내게 말했다. “수술로 아내분이 추가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기는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요.”

나는 의사의 말에 대해 아내와 상의한 후 기도를 드렸다. 아기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수든 써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큰 아들인 테일러는 입양한 아이이다. 테일러를 입양하고 2년 후에 세라는 임신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기적이 필요했다.

잠시 후에 전문의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시간이 빠듯하긴 하지만 아내분을 텍사스주 엘파소에 있는 어린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미숙아와 중증 질환을 가진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곳으로 가면

아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 병원의 구급차가 와서 세라를 태우고 45분 거리에 있는 어린이 병원으로 내달렸다. 나는 구급차 뒤를 바짝 쫓아가면서 주님께 기적을 보여 주시기를 기도로 간청했다. 나는 복음의 길에 머무르고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어린이 병원에 도착한 후, 나는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이미 기적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이제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출산은 순조로웠고, 아기도 무사했다. 우리 아기 샤나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개월 반을 보낸 후에 집에 올 수 있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다.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했다. 우리 부부는 주님의 축복으로 쌍둥이를 낳을 수 있었다.

샤나는 지능이 약간 낮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생활하지만,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긍정적이며 모든 이와 친구가 되는 아이다. 샤나는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걸 좋아하고, 삶에 대한 기대감에 차 있다. 그 아이는 우리를 항상 웃음 짓게 하고, 행복하라고 가르쳐 준다. 우리는 샤나를 사랑하고 그 아이에 대해 감사드린다. 샤나는 진정 우리가 받은 축복이다. ■

대니얼 페인, 미국 뉴멕시코주





## 성전 일반 공개에서 나의 마음이 열렸다

성전 일반 공개 일정이 발표되었을 때, 마치 주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오라며 개인적으로 초대하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열다섯 살 때 침례를 받았는데, 나의 새로운 종교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교회에 가입하겠다는 내 결심은 친구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고, 교회 회원이 아니신 부모님은 내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셨다.

그 결과, 나는 교회에 계속 참석하고 복음대로 생활하기가 어려웠다. 열아홉 살 때 쯤에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관두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엘살바도르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주님의 집이 우리나라에 지어진다니,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다! 4년 후,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일반 공개 일정이 발표되었다. 일반 공개 동안 성전에 들어가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치 주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오라며 개인적으로 초대하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성전 안을 거닐었던 그날은 내 인생 최고의 날 중 하루였다. 일반 공개 동안 나는 헌납된 성전 안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한 개인이 하나님과 맺는 성스러운 성전 성약에 관해서도 배웠다.

성전의 각 방을 둘러보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평안이 느껴졌다. 성전을 다녀온 후, 나는 교회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대로 생활하겠다는 소망이 생겼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에 나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조상을 위한 성전 사업을 완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성전 안에서 했던 경험 덕분에 나는 변화했다. 이제 나는 우리 와드 회원들이 성전에 갈 준비를 하도록 돕고, 자신의 조상을 위한 성전 사업을 하기 위해 가족 역사를 조사하도록 돕는다.

교회로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선을 행하기에 너무 늦은 때도 없다. 주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 성전을 통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언젠가 그분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

리카르도 마타모로스, 엘살바도르 아우아차판

# 사랑의 은사

페이스 에스 왓슨

한 어머니가 남편이 자녀에게 유아 축복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신권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는다.

**나**는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였으며, 첫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초보 엄마였다. 그날은 금식일이었고, 자그마한 우리 딸아이는 곧 이름과 축복을 받게 될 참이었다. 우리가 다니던 와드에는 젊은 가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는 유아 축복을 주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나는 내가 무슨 경험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 경험이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영을 통해 느끼고 있었다.

우리의 작고 소중한 딸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서 있는 남편을 다른 신권 소유자들이 경건히 둘러쌌다. 내 마음은 감미로운 영이 주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벽찬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의 은사인 신권의 깊이와 범위에 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선교사들과 토론을 하던 시기에 나는 선교사들이 자기네가 신권을 지녔다는 사실을 얼마나 명예롭게 여기는지를 느꼈다. 선교사들의 말과 기도에서 그런 생각이 묻어나곤 했다. 내가 지혜의 말씀에 관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선교사들이 내게

축복을 주었을 때도 그랬다. 축복을 주는 동안 내 머리에 살며시 얽은 손들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는데, 나는 그 축복의 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치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침례를 받았고, 신권 지도자들은 내 머리 위에 다시금 손을 얹었다. 나는 주님의 교회 회원으로 확인되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깨끗해지고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신권의 권능을 온몸으로 느끼고, 난생처음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침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과 나는 결혼했다. 시부모님은 교회 회원이셨고, 남편은 복음에 중심을 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나는 남편의 간증이 깊게 뿌리내리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는 않았다. 내 여린 신앙은 나를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었다. 나는 그저 남편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아이를 임신해 있는 동안에 나는 여느 엄마들처럼 아기와 내가 아주 가까운 관계임을 느꼈고, 내 안에 존재하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딸아이가 태어난 후로 아이와의 유대감이 강하고도 감미로운 사랑의 끈이

되었다.

다만 남편이 걱정이었다. 그는 나처럼 아이와의 친밀한 유대감을 맛보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남편은 딸아이를 사랑했지만, 나는 그 둘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다. 내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안아 주는 데 시간을 쓰는 동안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려고 일에만 거의 매달려 있다는 게 걱정되었다.

아기가 태어난 지 몇 주가 지난 후인 그날 우리는 예배당 안에 함께 있었다. 내 눈앞에, 그리고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났다. 남편은 머뭇거리면서 동그렇게 둘러선 형제들에게 겸손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남편의 눈은 빛으로, 그리고 글썽이는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형제들은 순수하고도 거룩한 사랑이 가득한 작은 원을 짓고 서서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기를 받쳐 드는 것을 도와주며 남편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여 주었다. 남편이 축복을 주기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순간 그가 주님의 권능을 느끼고 그분의 신권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명예롭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의 마음속에 딸에 대한 큰 사랑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이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주기 위해 남편이 자신을 준비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이 이제 딸에 대해 친밀한 유대감을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없이 기뻐했다. 그것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을 유대감이었다.

그 일이 있고 여러 해가 지났다. 나는 여러 방법으로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자녀를 위해 행사되는 신권의 권능과 아름다움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느꼈다. 나는 아름다운 구원 의식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았고, 정결해지고, 치유되고, 위안을 주고, 가르침이 전달되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보고, 느꼈다.

나는 여전히 신권의 위대함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유아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의 첫아이를 축복할 때 느꼈던 똑같은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능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보여 주신 사랑에 놀라움을 느낀다. 또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아름다운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다는 것에 더 말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 엘마의 질문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엘**마는 제이라헤틀라 백성에게 36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그들이 자신의 영적 발전을 평가해 보게 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영적인 평가가 유익한 것임을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이 [평가의] ... 시간을 위한 지침으로, 엘마서 5장에 나오는 자기 성찰적인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sup>1</sup>

나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엘마서 5장 7~3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변화하고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엘마가 가르친 내용을 찾아본다.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 실천 계획을 세워 본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엘마는 또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어떻게 구해 내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들 자신의 개종 과정을 되새겨 보라고 권유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의 개종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을 고려해 본다. 여러분의 조상이나 초기 교회 회원들의 개종 이야기를 읽어 볼 수도 있다.

“모든 후기 성도들이 자신의 선조가 어떻게 교회로 개종했는지 그 이야기를 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 우리 선조들이 주님의 교회로 인도받은 신앙과 희생의 이야기를 알 때, 우리가 받을 축복이 참으로 클 것입니다.”<sup>2</sup>

주  
1. 엠 러셀 벨라드, “돌아가서 받으십시오”,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64쪽.  
2. 윌리엄 알 워커, “신앙에 충실한 삶”,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7쪽, 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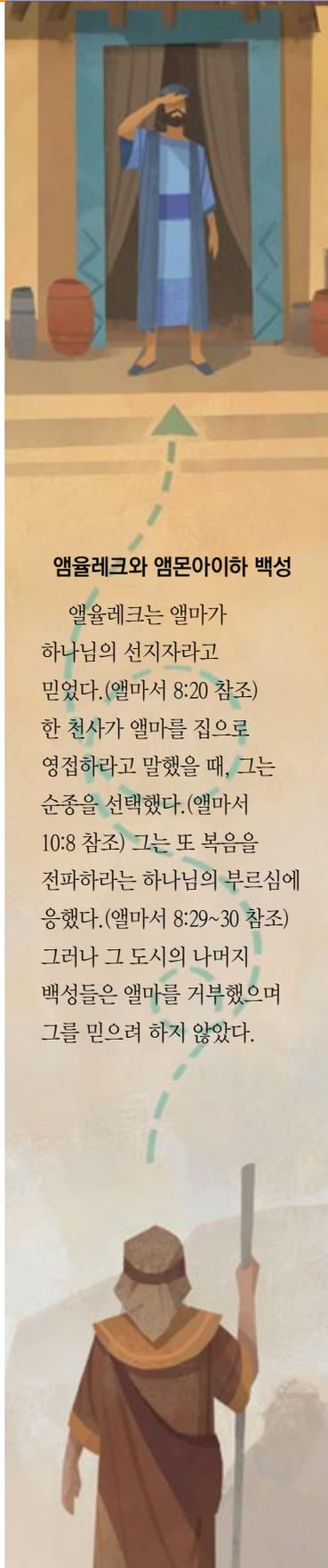


# 부드러운 마음을 키우면 영적인 지식을 얻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엘**마가 앰몬아이하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대부분의 백성은 그를 거부했으나 앰올레크는 그의 가르침을 듣고 믿었다. 앰올레크와 앰몬아이하 백성의 차이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와 완악하게 할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엘마서 12:10 참조)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다.

## 토론

- 앰올레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좋은 특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 만약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를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 여러분이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을 품기를 선택할 때, 주님께서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떤 축복을 마련해 두실 수 있겠는가?



### 앰올레크와 앰몬아이하 백성

앰올레크는 엘마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었다.(엘마서 8:20 참조) 한 천사가 엘마를 집으로 영접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순종을 선택했다.(엘마서 10:8 참조) 그는 또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다.(엘마서 8:29~30 참조) 그러나 그 도시의 나머지 백성들은 엘마를 거부했으며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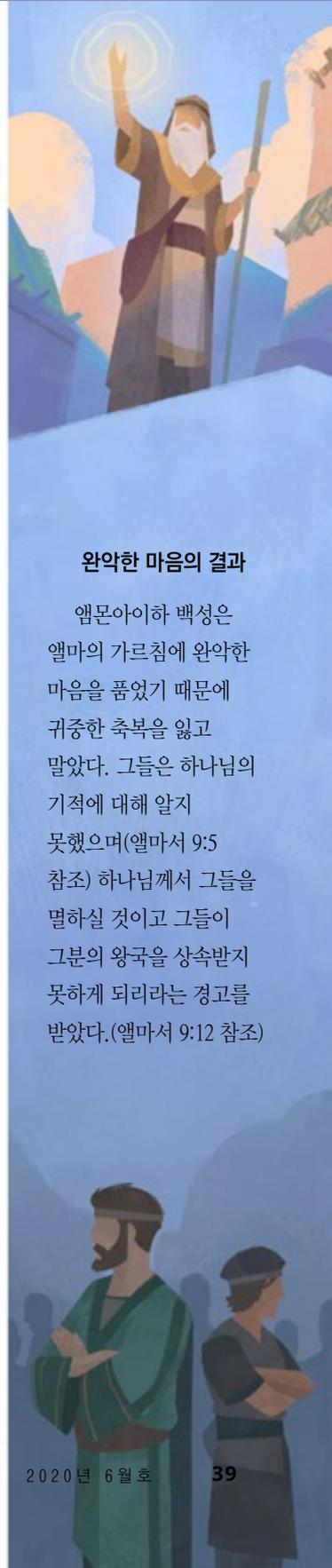
### 부드러운 마음이 가져오는 축복

앰올레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으로 축복받았다. 그는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었고(엘마서 8:30)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간증을 얻었으며(엘마서 10:5 참조) 그를 속이려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알 수 있었다.(엘마서 10:17 참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축복을 받는 편을 선택할 수 있다.



### 완악한 마음의 결과

앰몬아이하 백성은 엘마의 가르침에 완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귀중한 축복을 잃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엘마서 9:5 참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그들이 그분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리라는 경고를 받았다.(엘마서 9:12 참조)





엘마서 13~16장  
6월 15일~21일

# 구원의 의식들은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가?

“**복**음의 의식이 없는 선한 행위는 인류를 구속하거나 승영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sup>1</sup>

## 준비한다

엘마와 앰올레크는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도록 그분으로부터 부름받고 준비되었다.(엘마서 13:3 참조) 또한 그들은 “거룩한 의식으로 성임되”었다.(엘마서 13:8) 성임 및 그 밖의 여러 의식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고 주어졌다.(엘마서 13:16 참조) 모든 의식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

여러분은 복음의 구원 의식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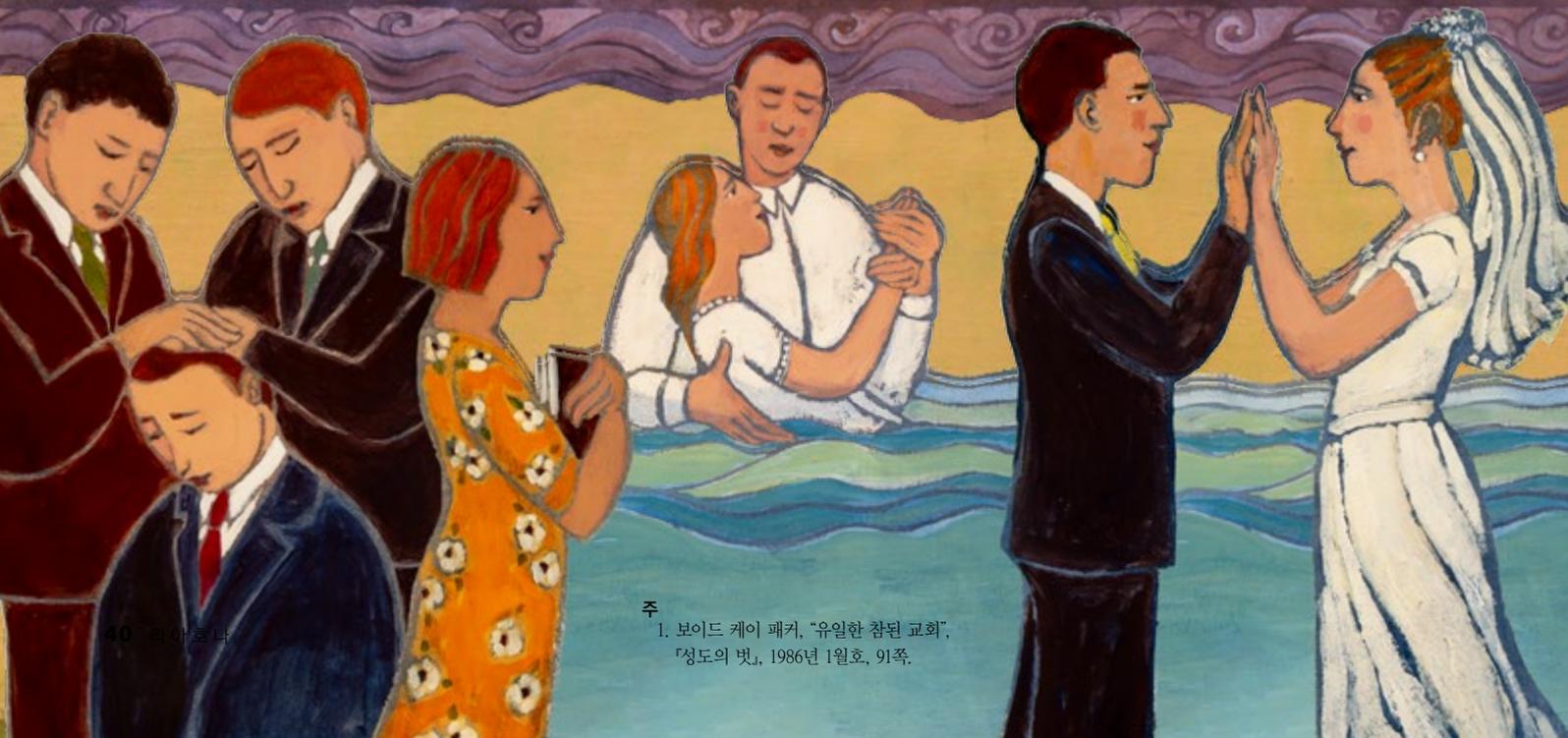
## 회개한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구주께로 돌이킨다. 구원의 의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 집중시켜서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준다.(엘마서 13:16 참조)

## 받는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원 의식들을 제공해 주신다.(엘마서 15:6)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구원 의식을 받았으며, 그것을 통해 어떻게 더 구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는가?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유일한 참된 교회”, 『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91쪽.



엘마서 17~22장  
6월 22일~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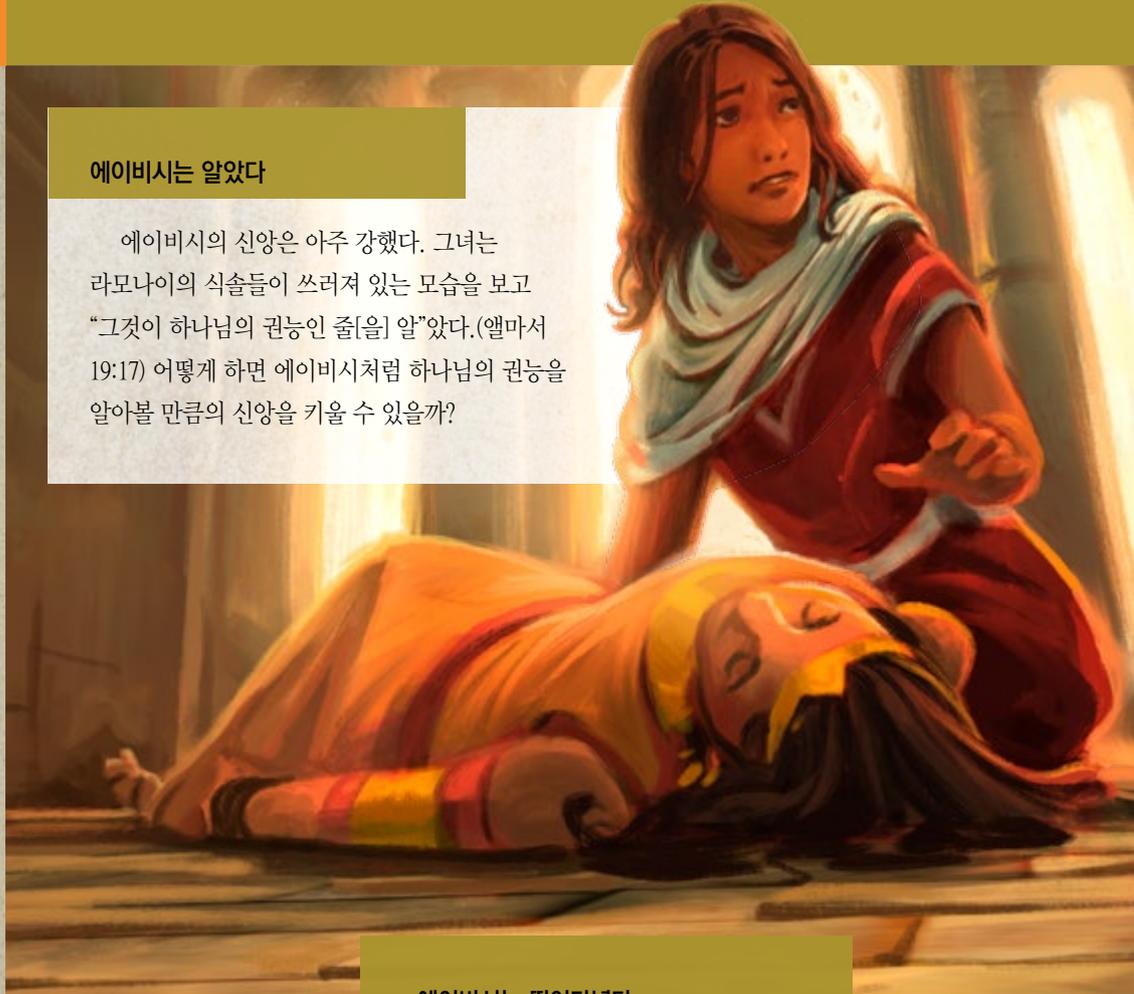
## 어떻게 나는 신앙을 갖고 즉각 행동할 수 있을까?

**몰** 문경에 나오는  
에이비시의 충실하고  
즉각적인 행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일에서 신앙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에이비시가 얼마나  
온전히 “주께로 돌이”켰는지를  
생각해 본다.(엘마서 19:16)

**토론**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각  
온전히 행동할 힘을 받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강화할 수 있을까?

### 에이비시는 알았다

에이비시의 신앙은 아주 강했다. 그녀는  
라모나이의 식솔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줄[을] 알”았다.(엘마서  
19:17) 어떻게 하면 에이비시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볼 만큼의 신앙을 키울 수 있을까?



### 에이비시는 뛰어다녔다

에이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보자마자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백성들에게 와서 이 기적을 보라고 말했다.(엘마서  
19:17) 에이비시는 신앙에 힘입어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으로 행동하는 면에서, 여러분은  
뛰기보다는 걷고 있는 복음의 영역이 있는가?

### 에이비시는 사람들의 손을 잡았다

에이비시는 자신의 행동이 왕후를 일으키리라는 신앙을 품고  
“왕후의 손을 잡”았다.(엘마서 19:29) 하나님을 믿는 신앙 덕분에  
그녀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삶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이번 호 이야기

**44**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과정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버려라  
도미니카 스토이카

**48** 독신인 동안에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다  
랜든 호스

온라인 전용

미래의 배우자에게 물어봐야 할 10가지

다시 알게 된 그의 모습과 영의 인도를 신뢰하며  
마리 네츨러

독신으로 살아가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다  
크리스티나 코터럴

장거리 연애에서 연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7가지 비결

아래에서 이 기사들과 그 외의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본다.

-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http://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 (복음 자료실 앱의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 [facebook.com/liahona](https://facebook.com/liahona)

## 배우자를 찾으려 구주의 은혜 또한 찾게 되기를

**주**님은 “[그분의] 은혜가 온유한 자에게는 족하”라고 약속하십니다.(이더서 12:26) 이 말씀은 청년 독신 성인인 우리 모두에게, 특히 영원한 동반자를 찾을 때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이 되어 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제자들은 자주 열린 마음으로 사랑할 사람을 찾으려 하지만, 소망이 이뤄지지 않아 실망하거나 데이트 상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반자를 찾는 과정은 두려움과 분노, 씁쓸함과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태가 자신이 꿈꾼 결혼 시점을 지나서도 수년간 계속된다면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듯이, 결혼하여 의롭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는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이런 감정에 얽매이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실을 고려하여, 이 섹션의 기사들은 여러분이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은 **발전적인 삶을 사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와, 여러분이 앞으로 맞이할, 사랑 넘치고, 보살핌이 있으며, 뿌리를 깊이 내린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조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 줄 때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 줄 그런 상대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시간을 내어 이 기사들을 읽어 보십시오. 약속하건대, 마음을 가볍게 해 주고, **주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정말로 족하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를 여러분은 찾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랜든 호스

###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교회와 관련된 의심을 극복하는 데 가장 탁월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2020년 6월 30일까지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http://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 주십시오.





#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과정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버려라

도미니카 스토이카

**폴** 란드에서 우리 교회는 규모가 매우 작다. 사실, 우리 교회는 동유럽 어느 곳에서나 작은 편이다. 와드나 스테이크는 고사하고 나라 전체에서도 우리 또래의 교회 회원은 많지가 않다. 다행인 것은 여러 유럽 국가에서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대회가 매년 열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회가 꼭 “완벽한 짝”을 찾게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다. 그런 대회는 주로 청년 성인들이 가치관이 같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다.

## 우정에 집중하면서

폴란드에서 열린 2010년 대회에서 나는 라두를 만났다. 라두는 루마니아 출신이었다. 우리는 짧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곧 선교 사업을 떠났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에 열린 청년 독신 성인 대회에서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실제로 서로에 대해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한 달 후에는 내가 선교 사업을 나갈 예정이었다. 라두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원해 주며,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고 말했다. 라두가 진짜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 라두는 내가 선교 사업을 하는 내내 편지를 보내 주었다. 편지에 로맨틱한 내용은 없었지만, 그는 나의 소중한 친구 중 하나가 되었다. 나는 라두가 나와 선교 사업을 전반적으로 존중해 준 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라두와 나는 서로를 제대로 알아볼 기회가 생겨서 매우 기뻐했다. 마침내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그럴 시간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얼마간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적당한 장소(당시 벨기에)를 찾았다. 우리는 대회를

인생의 목적은 결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실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하고, 하고, 또 했다.

우리는 이 관계와 관련해서 어떠한 압박감도 지우지 않았다. 우리는 우정을 쌓으며 그저 서로를 알아 가는 데 집중했다. 함께 있을 때면 늘 재미있었고,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아주 의미 있고 심오한 토론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우정은 더욱더 두터워졌다. 거의 매일 영상 통화를 했고, 나중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기도도 하기 시작했다. 마침내는 몇 달에 한 번씩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 “그것에 대해 기도해 보자”

얼마 후, 나는 우리의 우정이 그 이상의 무언가로 발전하는 것 같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루마니아 출신이었다! 나는 장거리 연애는 하고 싶지가 않았다. 연애는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건 우리 중 하나가 타국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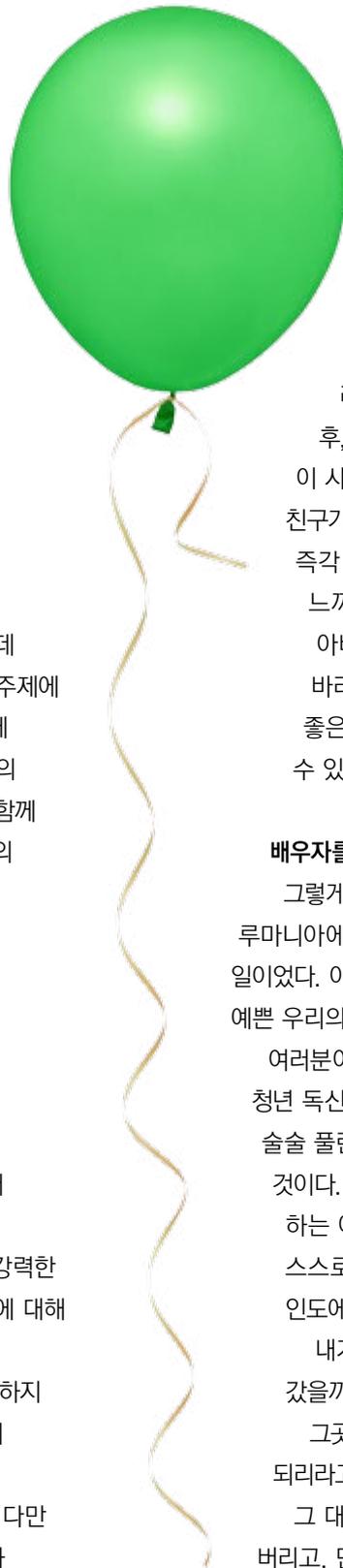
특히 불안감을 느끼던 어느 날, 라두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를 내게 일깨워 주었다. 그가 말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해 기도하고 어떤 느낌이 오는지 보자.”

내가 왜 더 일찍 우리의 관계에 대해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라두의 말은 당시 내가 받은 최고의 조언이었다. 그래서 나는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했다.

당시에는 어떤 구체적인 응답을 기대하지는 않았고, 다만 라두를 계속 알아보기로 했다. 나는 만약 우리의 관계가 지속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고해 주시기를 바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응답이 찾아왔다.

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라두에 대해 이야기했고, 모든 대화에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곧 나는 재미있는 깨달음을 얻었다.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라두와 또 한 번의 기분 좋은 영상 통화를 한 후, 나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평생 살면서 이 사람처럼 좋은 친구는 없었지. 그의 영원한 친구가 되고 싶어!”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스치며, 즉각 내 말을 받아치는 이런 소리가 머릿속에서 느껴졌다. “그럼, 그와 결혼해야 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라두의 관계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버려라

그렇게 나는 루마니아로 이주해서 라두와 결혼했다. 루마니아에 정착하는 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이제 우리는 결혼한 지 4년차가 되었고, 아주 예쁜 우리의 딸 아멜리아도 태어났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여러분은 내가 청년 독신 성인 대회에서 “영혼의 짝”을 만나 일이 술술 풀린 그런 청년 독신 성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영원한 동반자를 찾기 위해 스스로를 압박하는 일을 멈추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인도에 여러분을 맡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이다.

내가 남편을 찾기 위해 청년 독신 성인 대회에 갔을까? 아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 중 한 명이 나의 남편이 되리라고 생각했을까? 사실 그렇지 않다.

그 대신 나는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고, 단순히 사람들과 교류하고 우정을 쌓기 위해 대회에 참석했다. 그것이 바로 라두와 내가 처음에 한 일이다.

영원한 동반자를 가능한 한 빨리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종종 피부에 와닿을 만큼 현실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영원한 관계에 시간제한이란 없다. 그 문제로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결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오히려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실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밖으로 나가 활동에 참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며, 자신만의 안전 지대를 벗어나야 한다. '나는 "내 짝"을 찾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인생 계획을 완전히 망치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약혼했을 때 라두는 그런 말을 했었다. 그가 좋아했던 여자들과 있을 때면 보통 어느 정도 압박감을 느꼈지만, 나오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고 말이다. 그는 우리의 우정 때문에 언제나 편안함을 느꼈으며,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일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므로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즐겨야 한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압박감을 털어 버리고 우정을 쌓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자기가 있는 곳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삶이 훨씬 더 즐거워지기 때문이다.

###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자

라두와 나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에 충실했을 뿐이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타인에게 가장 호감을 주는 것은 우리의 참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노력할 때, 여러분은 그분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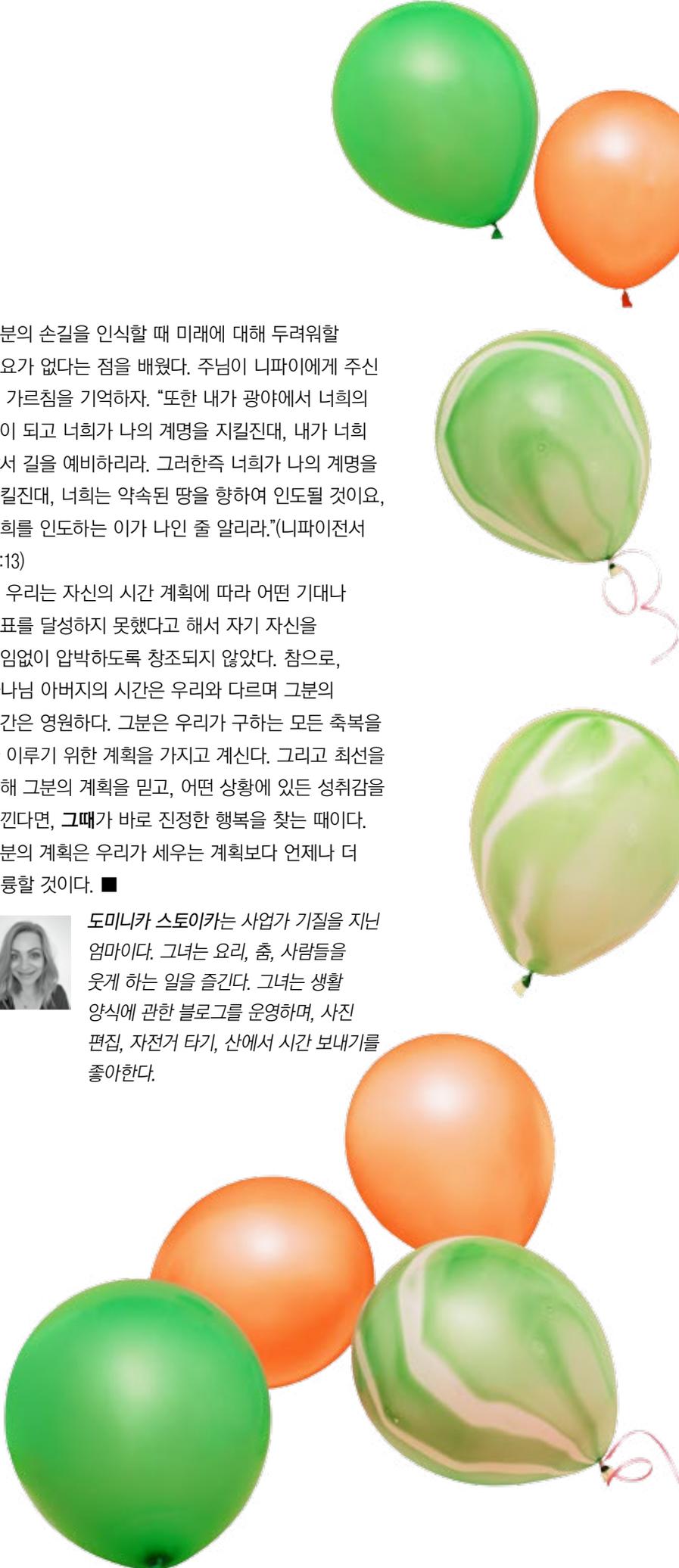
나는 또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신앙이 충만할 때,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도록 초대되며,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인식할 때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배웠다. 주님이 니파이에게 주신 이 가르침을 기억하자. "또한 내가 광야에서 너희의 빛이 되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내가 너희 앞서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한즉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약속된 땅을 향하여 인도될 것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이가 나인 줄 알리라."(니파이전서 17:13)

우리는 자신의 시간 계획에 따라 어떤 기대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압박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며 그분의 시간은 영원하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축복을 다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분의 계획을 믿고, 어떤 상황에 있던 성취감을 느낀다면, **그때**가 바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때이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계획보다 언제나 더 훌륭할 것이다. ■



*도미니카 스토이카는 사업가 기질을 지닌 엄마이다. 그녀는 요리, 춤, 사람들을 웃게 하는 일을 즐긴다. 그녀는 생활 양식에 관한 블로그를 운영하며, 사진 편집, 자전거 타기, 산에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한다.*



랜든 호스

# 독신인 동안에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동안 데이트에 대한  
나의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다**

들 데이트하면서 즐겁게 지내는데 왜 나만 못하는 걸까?”

“왜 난 아직도 독신이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대부분의 청년 독신 성인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과제는 가장 헌신적인 후기 성도의 신앙과 소망마저 약하게 만들 수 있다. 그건 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특히

데이트를 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내게 결혼은 언제나 아주 멋진 모험처럼 보였고, 그래서 어린 나이일 때부터 결혼을 고대해 왔다. 하지만 대학 시절에 나는 내가 자주 데이트에 실패한다고 느끼고는 낙담했다. 데이트도 많이 나가고, 몇 번은 진지하게 교제도 해 보고, 뛰어나고 흥미로운 여성들도 만났지만, 결혼은 하지 못했다. 그렇게 실패한 만남들은 내가 열등하고 매력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만 같았다.

일을 시작하고 몇 번의 헤어짐을 더 겪은 후로는 내가 미혼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싫어졌다.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결혼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빠지기 일쑤였다. 여러 신권 축복과 내 축복문에는 내가 이생에서 의로운 여성에게 인봉될 것이라는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런데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심지어는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계획을 망쳐 버릴 만한 어떤 짓을 한 것은 아닌지 염려되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성전에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끝에, 마침내 나는 친구이자 상담가인 브래드(가명)를 통해 내 상황과 관련된 계시를 받게 되었다. 한번은 상담 중에 브래드가 이런 말을 했다. “네 행복은 너 자신에게 달려 있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독신일 때도 행복하다면, 너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어.” 러셀 엠 넬슨 회장님도 이렇게 가르치셨다. “우리는 우리가 놓인 환경과는 관계없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2쪽)

영이 이 가르침을 내 영혼에 깊이 새겨 준 후로 내 관점은 180도 바뀌었다. 나는 내가 항상 어떤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데이트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경우에 그 욕구는 단순히 결혼해서 독신에서 탈출하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으로는 영원히 사랑할 동반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다! 브래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게 그분의 아들딸들이 필요나 문화적 압력, 또는

두려움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당신의 계획이 아님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다. 결혼의 토대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에 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서는 미혼으로 지내는 시간들을 통해 내게 자신의 삶을 사는 법, 내 편의가 아닌 순수한 사랑을 기초로 결혼을 추구하는 법, 그리고 의로운 동기로 결혼을 추구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데이트에서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생각해 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진리를 알려 주었다.

1. **여러분의 가치는 결혼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라고 가르쳤다.(이사야 55:8) 나는 독신이라는 사실이 내 가치의 부족함을 반영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신으로 보내는 시간이 내가 원할 때 결혼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다. 결혼 여부는 내 가치와 전혀 무관했다.
2. **준비는 불안과 걱정을 없애 준다.** 주님은 “[우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신다.(교리와 성약 38:30)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 그것을 따르면서, 내 결혼 상태에 대해 느끼던 두려움과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나는 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에 대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3. **독신일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다.** 나는 독신이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여행을 떠나고, 전문성을 개발하고, 교회에서 여러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싶은 간절한 소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곁에 배우자가 있든 없든 내가 당장 그분의 왕국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도록 도와주셨다.

나는 여전히 미혼이다! 데이트와 결혼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다고 해서 아내가 마법처럼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장담컨대 나는 미래에도 데이트 때문에 가끔 좌절할 것이다. 하지만 결혼 여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많이 사라졌다.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필멸과 영생에 걸친 모든 영원한 약속과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과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한, 내가 독신이어도 정말 괜찮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안다. ■



랜든 호스는 세계를 누비는 도시 계획가로, 좋은 글과 좋은 책, 세계 탐험을 좋아한다. 여러분이 그를 만난다면 그는 동네 도서관에 있거나, 농구 경기장에서 자기 팀을 응원하고 있거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장소를 찾기 위해 오지의 길을 여행하고 있을 것이다.



**포포아 브이,** (왼쪽) 18세

**에투알레 브이,** (오른쪽) 16세, 사모아 사발리

우리 가족은 모두가 서로 돕습니다.

**포포아:** 우리 가족은 협동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저와 제 남동생 에투알레는 요리할 때 쓸 장작을 모으고, 판매할 음식을 만드는 일을 돕습니다. 한번은 우리 가족이 비싼 수도세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저마다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힘썼습니다. 언니는 바비큐를 팔았고, 저와 에투알레는 코코넛과 다른 먹을거리를 모아 파는 일을 도우며 돈을 벌었습니다. 가족이 열심히 협동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덕분에 우리는 수도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에투알레:** 하나님은 제 인생의 모든 부분에 도움을 주십니다. 그분은 매일 제게 힘과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사모아에 사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곳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제 가장 큰 꿈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2년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 청소년

### 이번 호 이야기



- 52** 전 세계 이곳저곳을 누비며 얻게 된 간증  
윌머 아마야 무노스
- 54** 청년 창립 150주년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
- 58** 청년: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며  
어맨다 던
- 62** 질의응답: 우울증, 인종 차별
- 64**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신권 권능을 지니고 함께 봉사함  
엠 러셀 벨라드 회장

# 전 세계 이곳저곳을 누비며 얻게 된 간증

월머 아마야 무노스

**나**는 스페인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8년을 살았다. 우리 가족은 교회에 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침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침례를 받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부모님께 왜 우리 가족이 더는 교회에 가지 않는지, 그리고 왜 나는 침례를 받지 못하는지 여쭙보았다.

침례받고 싶다는 소망을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감동하셨고, 우리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좋은 느낌이 들었다. 엄마는 나에게 정말 좋은 모범과 영감이 되어 주셨다. 엄마는 강한 간증을 가지고 계셨고 자주 경전을 읽으셨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아버지의 고향인 베네수엘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거기서 2년을 살았는데, 그곳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다. 음식이 정말 맛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나를 만나기를 애타게 고대하던 친척들이 계셨다. 친척들은 정말 겸손한 분들이었다. 우리는 다 함께 교회에 나가고, 영을 느꼈다.

교회에 참석하고 영을 느낄 수 있기는 했지만, 나는 우리 가족과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돼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감독님은 모든 회원에게 그 해가 끝나기 전에 물문경을 읽도록 권유하셨다. 나는 그 권유에 따르면 부모님과 내가 주님의



삽화: 폴린 그레이슨

이것은 내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고, 어떻게 우리 가족이 복음에 따라 살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복음대로 더 충실히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알았다. 물몬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큰 지식과 축복을 구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경전을 읽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나는 침례를 받았다. 나는 삶에서 정말로 영을 느낄 수 있었고,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였다. 내 간증은 더 자라기 시작했다. 우리는 다시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주했다. 그리고 스페인을 떠났을 때처럼 또다시 많은 변화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의 간증은 더 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참석했고, 계속해서 경전을 읽었다.

많은 노력과 경전 공부, 기도, 옳은 선택 끝에 우리는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감독님께 말씀드렸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마침내 그날이 왔다. 성전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우리는 마음이 한껏 부풀었다.

부모님이 자신들을 위한 성전 의식을 기다리시는 동안 나는 대리 침례를 받았다. 마치 내가 다시 침례를 받는 기분이었다. 휘장 너머에 계신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이제 나는 가족과 함께 매주 성전에 간다. 나는 대리 침례를 받는 것을 좋아해서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봉사한다. 성전에서 영원히 부모님께 인봉되고, 부모님과 함께 영원히 살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쁘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이  
행해야 할 위대한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 청녀 창립

## 150주년

보니 에이치 코드 자매  
본부 청녀 회장

**하** 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놀라움과 감사로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150년 전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이 바라시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이 청녀 조직을 조직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브리검 영(1801~1877)은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우리의 간증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딸들은 진리에 대한 살아 있는 간증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 저는 우리 소녀들이 스스로 복음의 지식을 얻기를 바랍니다.”<sup>1</sup> 또한 영 회장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간증을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보다 일어서서 간증을 나눌 때 그것을 더 잘 얻게 됩니다.”<sup>2</sup>

청녀 조직은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오랜 시간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변화했더라도 여러분이 살아 있는 간증을 얻고 신앙을 갖고 성약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다는, 즉 청녀를 위한 그 목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신앙으로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마련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지난 역사 속의 청녀 반

청녀가 처음으로 조직됐을 때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분야에서 발전한다”는 목표를 둔 “검약회”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검약회는 1900년대 초에 젊은 여성 상호향상회로 변경되었고, 12세부터 24세의 젊은 여성이 청녀 반에 속했습니다. 반 이름은 세월을 거치면서 캠프 파이어 소녀, 꿀벌반, 가디언반, 글리너반 등으로 계속해서 변경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청년 조직이 생겨남에 따라 반 이름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Mia Maid(장미반)라는 반 이름을 장미 소녀라는 뜻의 "Rosenmädchen"으로 바꾸었듯이 말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청년가 있는 오늘날에는 각 와드 혹은 지부의 필요 사항에 따라 반이 조직되며, 그 모두가 청년라는 통합된 명칭으로 불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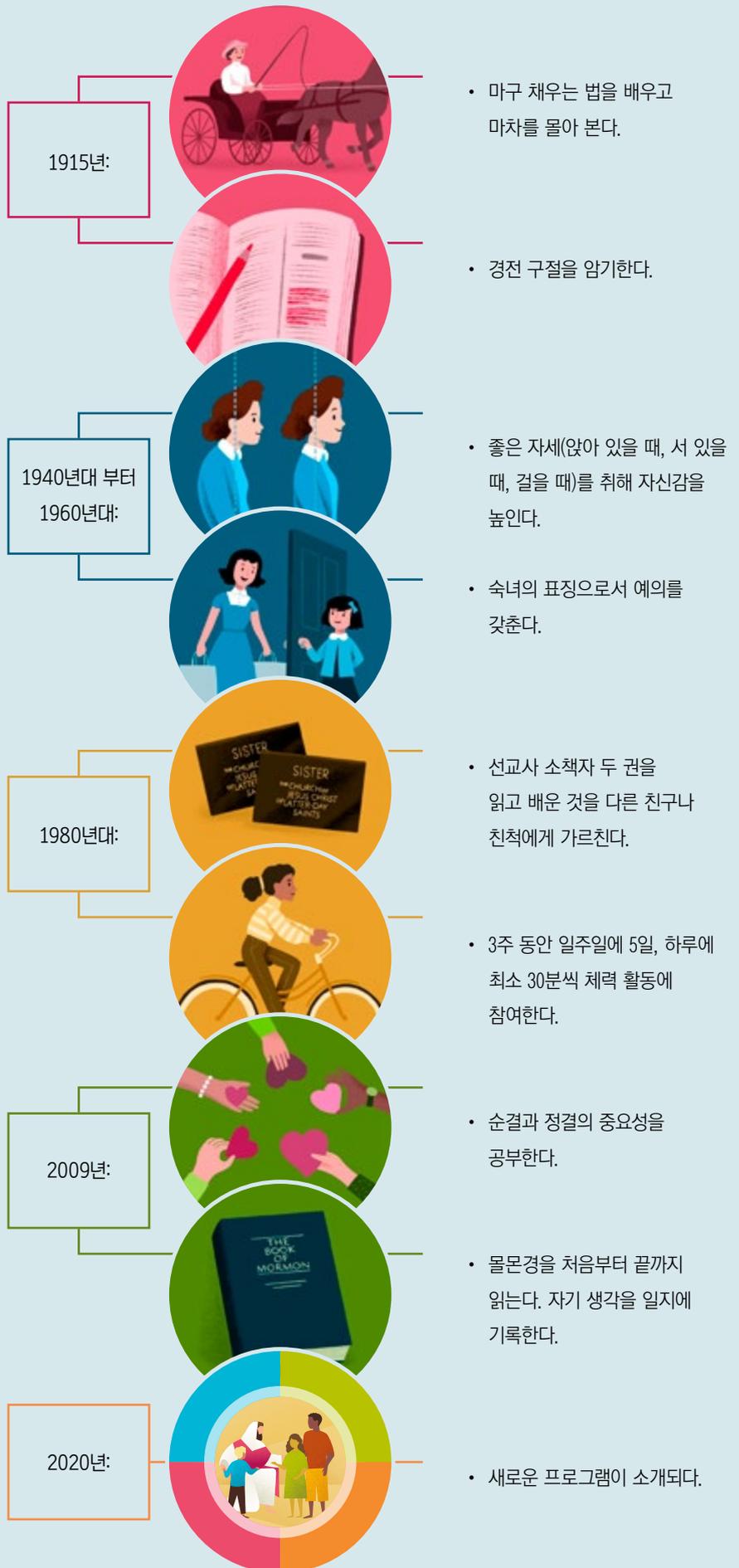
지난 시간 동안 청년 프로그램 달성 요건도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오른쪽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이 달성 요건을 보면 공통점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 목적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것에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에는 여러분이 자립하고 구주께 의지하도록 권유하는 새로운 개인 발전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힘을 다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신을 구하고 자신의 목표를 세우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훌륭한 청년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청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적용하도록 부름받고 성별받은 여러분의 또래 친구인 반 회장단도 감독단과 청년 회장단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또래 친구의 인도를 받는 청년이 50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모든 청년은 다음의 근본적인 원리를 포함한 주제를 통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여러분은 성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성신을 통해 오는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고 그에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힘써 노력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다른 이들에게 성역을 베푸므로써 하나님의 빛나는 증인이 됩니다.

###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으며 필요한 존재입니다!

살아 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로서, 여러분은 “시온 산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되었습니다.<sup>3</sup>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집합하고 전 세계가 구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는 그날인 **우리** 시대에 관해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위대한 집합이라는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sup>4</sup>

이것은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고, 지도자 위치에서 봉사하며, 동료 자매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가족과 친구에게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라는 신성한 초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으며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이 행해야 할 위대한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일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당신의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넬슨 회장님의 말씀에 저 역시도 여러분을 향한 저의 믿음과 신뢰를 보태고 싶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지상에 보내신 이들 중 가장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도 더 똑똑하고 현명해짐으로써 이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sup>5</sup>

여러분이 청년 주제의 내용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주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빛과 사랑을 나눌 기회로 가득 찰 것입니다. 구주를 따르려 노력할 때, 여러분은 굳세고 확고한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

### 주

1. Brigham Young, in *A Century of Sisterhood: Chronological Collage, 1869–1969* (1969), 8.
2. Brigham Young, in Susa Young Gates, *History of the Young Ladies' Mutual Improvement Association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from November 1869 to June 1910* (1911), 9.
3. 쿠엔틴 엘 쿡, 2014년 연차 대회(『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8쪽).
4.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청소년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8쪽, HopeofIsrael.ChurchofJesusChrist.org
5.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 16~17쪽.



# 청녀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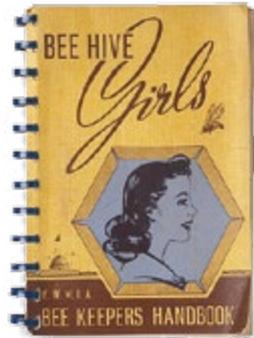
## 150주년을 기념하며

어맨다 던  
교회 잡지

# 오늘

해로 청녀 조직은 창립 150주년을 맞았으며, 지금은 이를 축하할 때이다! 187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조직이 어떻게 진화했으며, 현재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청녀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지, 역사 속에서 용기와 신앙을 보여 준 청녀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영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보자.

### 1870-1920



**명칭:** 1870년 5월 27일에 여성 협동 검약회 젊은 여성부가 브리검 영의 지시하에 공식적으로 조직되다.<sup>1</sup>

이 명칭은 1877년에 젊은 여성 상호향상회로 변경되었다.<sup>2</sup>

**조직과 반:** 14세 이상의 소녀들을 위한 하계 프로그램으로 꿀벌 소녀들 프로그램이 창시되다.

**발전과 표창:** 1915년에 The Bee-Hive Handbook[꿀벌반 지침서]이 발행되다. 이 지침서에는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덟 가지 “분야”, 즉 종교, 가정, 건강, 가사, 야외 활동, 경제, 대중에 대한 봉사가 설명되어 있다.<sup>3</sup>

**잡지와 저널:** 1889년에 Young Woman's Journal [영 우먼스 저널]의 창간호가 발행되다.<sup>4</sup> 현지에 조직된 여러 상호향상회에서 수기로 신문을 제작하여 청녀들이 한두 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 1920-1970



**명칭:** 1934년에 젊은 여성 상호향상회가 청녀 상호향상회로 변경되다.<sup>5</sup>

**조직과 반:** 두 개의 반, 즉 어린 소녀들을 위한 꿀벌 소녀들과 나이 든 소녀들을 위한 글리너스가 있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연령이 14세에서 12세로 변경되었다. 1950년에는 장미반이 소개되었다.

**발전과 표창:** 프로그램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 표창으로 골든 글리너 표창이 있다.





1970-2019



잡지와 저널: 1929년에 YOUNG WOMAN'S JOURNAL[영 우먼스 저널]이 모든 청소년을 위한 잡지인 IMPROVEMENT ERA[임프루브먼트 이라]와 통합되다.<sup>6</sup>



명칭: 1974년에 젊은 여성 상호향상회가 청년 조직으로 변경되다.<sup>7</sup>



조직과 반: 1972년에 이르러 청년 조직이 세 개의 반, 즉 꿀벌반(12~13세), 장미반(14~15세), 월계반(16~17세)으로 구성되다. 2019년부터는 12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청년들이 꿀벌반에 들어갔다.

발전과 표창: 개인 발전 프로그램과 메달 수여가 1977년에 소개되다. 1987년에 청년 가치관, 즉 신앙, 신성한 성품, 개인적인 가치, 지식, 선택과 책임, 선행, 고결성이 추가되다.<sup>8</sup> 2008년에는 정결이 추가되었다.<sup>9</sup>

잡지와 저널: 1971년에 청소년 잡지인 New Era [뉴 이라]가 영문으로 발행되기 시작하다. 『리아호나』는 청소년을 위한 기사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한다.<sup>10</sup>

청년이 청년 메달을 걸고 있는 사진: 알리시아 세르바 필라민 메달과 상인 메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의 몸 모습,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 재미있는 사실

1. 1915년에 발행된 Bee-Hive Handbook [꿀벌반 지침서]에는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300가지 넘게 소개되어 있었다.



소개된 프로젝트 중에는 한 계절 동안 벌집 돌보기, 2주 동안 집안에 파리가 꼬이지 않게 하기, 또는 적어도 2평방킬로미터의 땅에서 산속 뽕기 등이 있었다.<sup>12</sup>

## 2020



**명칭:** 청년 조직이라는 명칭이 지속된다.

**조직과 반:** 각 와드 또는 지부의 필요 사항에 따라 반이 조직되며, “청녀”라는 통합된 명칭으로 불린다.(예를 들어, “청녀 12반”, “청녀 12~15반”, 또는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경우 “청녀”)



**발전과 표창:** “어린이와 청소년”이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대체하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발전, 복음 학습, 봉사와 활동 영역에서 발전하기 위해 개인의 필요에 맞는 기회를 갖도록 청년들을 격려한다.<sup>11</sup>



**잡지와 저널:** 청소년 잡지인 New Era[뉴 이라]의 창간 50주년을 기념하는 해를 앞두고 있다. ■

## 주

1. See “Timeline of Young Women History,” [history.ChurchofJesusChrist.org/landing/a-brief-timeline-of-young-women-history](http://history.ChurchofJesusChrist.org/landing/a-brief-timeline-of-young-women-history).
2. See “Young Women’s Timeline,” *Mormon Women’s Studies Resource*, Harold B. Lee Library, Brigham Young University, Provo, Utah, [mormonwomen.lib.byu.edu/young-womens-portal/young-women-timeline](http://mormonwomen.lib.byu.edu/young-womens-portal/young-women-timeline).
3. See “History of Young Women Recognition,” [history.ChurchofJesusChrist.org](http://history.ChurchofJesusChrist.org).
4. See “Young Women’s Timeline.”
5. See “Young Women’s Timeline.”
6. See “Young Women’s Timeline.”
7. See “Young Women’s Timeline.”
8. See “Young Women’s Timeline.”
9. See “New Young Women Value: Virtue,” Dec. 9, 2008, [thechurchnews.com](http://thechurchnews.com).
10. See “Young Women’s Timeline.”
11. [ChildrenAndYouth.ChurchofJesusChrist.org](http://ChildrenAndYouth.ChurchofJesusChrist.org)
12. See “History of Young Women Recognition.”
13. See “History of Young Women Recognition.”
14. See “Young Women Classes and Symbols,” [ChurchofJesusChrist.org/young-women/personal-progress](http://ChurchofJesusChrist.org/young-women/personal-progress).
15. See “History of Young Women Recognition.”
16. See “The Annual Report of the Church,” *Ensign*, July 1972, 131–33.
17. See “Worldwide Statistics,”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facts-and-statistics](http://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facts-and-statistics).



2. 초기의 꿀벌반 소녀들은 현지의 각 조직에서 제작한 단체복을 입었으며, 1922년에는 상호향상회의 공식 색상이 금색과 녹색으로 정해졌다.



3. 꿀벌반이라는 명칭은 벌집을 일과 화합의 상징으로 여겼던 개척자 문화에서 유래되었다. Mia Maid[장미반]는 Mutual Improvement Association (상호향상회)의 머리글자인 MIA에서 유래되었다. 월계반이라는 명칭은 명예와 성취를 의미하는 월계관을 나타낸다.<sup>14</sup>



4. 194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 청년들은 반델로라고 불리는 펠트 띠에 꿰매어 가슴 부분에 두르고 다닐 수 있는 상징물을 받았다. 상징물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 한 가지로는 “이번 달에는 매일 밤 9시간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기”가 있었다.



5. 1870년에 11만 명이었던 교회의 총 회원 수는<sup>16</sup> 2020년에 16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sup>17</sup> 현재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 헤이븐이 내민 도움의 손길

자 신이 교회에서 청년의 일원임을 기념하고 싶었던 미국 유타주의 14세 소녀 헤이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결심했다.

헤이븐은 이렇게 말한다. “이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외삼촌이 인도주의 봉사를 하러 방글라데시에 가셨는데, 그걸 계기로 그곳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JustServe 앱을 살펴보다가 그곳 난민들에게 필요한 용품 키트를 집에서 직접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헤이븐은 학교에서 기증품을 모으고, GoFundMe[기금 모금을 위한 소셜 미디어—웁긴이] 페이지를 만들고, 이웃집 쓰레기통을 내놓는 일을 하면서 키트를 만들 기금을 마련했다. 헤이븐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마다 이웃의 쓰레기통 22개와 재활용품 통 11개를 내놓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대개는 그렇게 번 돈을 합창단 프로그램 비용으로 쓰거나 선교 사업을 위해 저축을 하는데 쓰는데, 그달에 모은 기금은 키트에 넣을 물건을 사는 데 쓰기로 했어요.”

헤이븐은 나가서 양말, 장갑, 목도리, 모자 등 키트 안에 넣을 모든 물건들을 샀다. 그녀는 하나하나 키트를 만들었고, Lifting Hands International[구호 단체의 이름—웁긴이] 책임자에게 연락을 해서 그 키트들을 방글라데시에 전달하는 일을 협의했다.

“제 프로젝트 중 대부분의 시간을 물건들을 주머니에 담아 키트를 만드는 데 썼어요. 키트에 물건을 담을 때마다 이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축복이



되리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자, 헤이븐은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다. “제가 최선을 다하려 노력한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이 일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돕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면서 구주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대해 어떻게 느끼시지는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청년 조직의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 각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다. 헤이븐처럼, 구주께서 하실 법한 봉사를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 우울해 보이는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적, 정서적 시련에 처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

어떤 것을 줄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기도와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깨진 그릇과 같으니”,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40~41쪽.



**함께하자고 말하세요**  
재미있는 활동을 같이 하자고 말하세요. 기대하던 대답을 듣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단지 어떤 초대를 받았다는 것, 또는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친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앨리사 에프, 16세, 미국 워싱턴**



**안심시켜 주세요**

우울해하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저는 그 친구의 어려움을 가볍이 여기지 않아요. 반대로 그 친구의 어려움이 가벼워지도록 돕죠. 저는

친구를 안심시키고 사랑해 주려고 노력해요. 친구가 답답함을 털어놓고 해소할 수 있게 해 줘요.

**양보 케이, 18세, 코트디부아르**

**여러분 자신마저 우울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친구와 여러분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말해 주세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지내는 게 힘든 상태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언제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되, 여러분 자신부터 돌보세요. 함께 우울해져 버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나으니까요.

**키라 더블유, 16세, 미국 캔자스**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세요**

우울해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앞으로 삶에서 겪게 될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감사할 만한 것들, 예를 들어 재미있는 경험들을 생각해 보세요.

**루크 피, 14세, 미국 뉴멕시코**

**친구가 좋은 일을 떠올리게 해 주세요**

저는 우울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그 친구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서 친구가 그날이나 인생에서 좋았던 것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요. 친구를 웃기려고 하거나 칭찬으로 기분을 좋게 해 주려 하기도 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부탁해서 친구가 목적 의식을 느끼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카슨 디, 15세, 미국 텍사스**

*편집자 주: 여기에 나와 있는 제언들이 유용하긴 하지만, 즉각적인 도움을 주거나 우울증을 앓는 사람을 낮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일 뿐,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

“어떻게 하면 주변에서 듣는 깨끗하지 않은 말들을 머릿속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20년 7월 15일까지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인종 차별과 관련된 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며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라고 믿는다.(니파이후서 26:33)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을 이유로 자신이 타인보다 더 우수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믿는다. 덧붙이자면, 우리는 인종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낮게 보거나 깎아내리거나 차별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믿는다.

현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가능한 한 가장 강한 어조로 인종 차별을 규탄했다. 다음은 그 예이다.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다른 인종에 속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교회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sup>1</sup>
- 엠 러셀 벨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자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용하고 인종 차별, 성차별, 국수주의 등 어떠한 편견도 지양해야 합니다.”<sup>2</sup>
- 맬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인종 차별이야말로 아마도 오늘날 편견을 불러오는 가장 잘 알려진 원인일 것이며, 우리는 모두 그것에 관해 회개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sup>3</sup>

**주**

1. 고든 비 힝클리, “보다 큰 친절의 필요성”,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58쪽.  
 2. 엠 러셀 벨라드, “여정은 계속됩니다!”,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106쪽.  
 3. 맬린 에이치 옥스, “하나가 되어: 기념해야 할 이유”, 『리아호나』, 2018년 12월호, 49쪽.

# 신권 권능을 통해 함께 봉사합시다

엠 러셀 벨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몇**년 전, 저는 아내 바버라와 함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만 개의 별들이 유난히 밝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값진 진주를 펴서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세상을 내가 창조하였고 또한 나는 내 자신의 목적이 있어 그것들을 창조하였으며,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창조하였나니, 이는 나의 독생자니라.”(모세서 1:33)

하늘과 땅은 신권 권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신권 권능의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권은 구주께서 기적을 행하고, 무한한 속죄를 이루시며, 부활을 통해 육신의 죽음을 극복하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권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남성은 신권을 베풀 고유한 책임이 있지만, 남성이 곧 신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아들딸이 신권 축복을 받고 신권 권능으로 강화되도록 길을 마련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 세상과 성운, 우주를 창조한 바로 그 신권 권능은 우리가 가족과 친구, 이웃을 돕고 강화하며 축복할 때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성역을 베푸신다면 응당 하셨을 법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교리와 성약 81:5 참조)

이 신권 권능의 주된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고, 성결하게 하고, 정화함으로써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하늘 부모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모든 남성, 여성, 어린이는 각기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업에 참여하고(모세서 1:39) 신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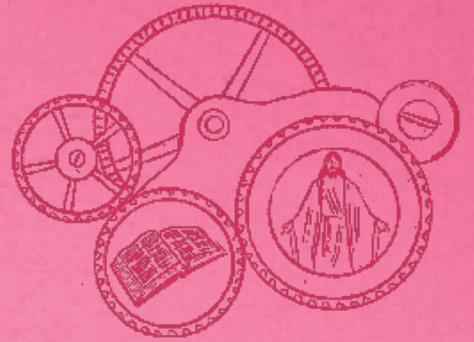
부디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통해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13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 에이비시



그녀의 신앙심 깊은 행동 덕분에  
수많은 레이맨인들이  
개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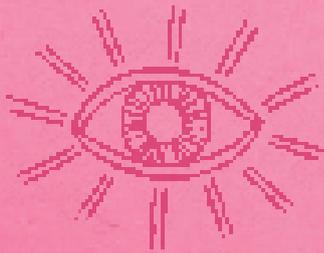
알맞은 때가 오기 전까지  
신앙을 알리지 않았음.



왕후의  
시종을 들던  
레이맨인  
여종이었음.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  
90년 경에 살았음.



“그 부친의 놀라운 시현” 덕분에  
복음으로 개종함.(엘마서 19:16)

본인이 독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압박감을 받는가?

다른 청년 성인들은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과정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었는지 읽어 본다.

42



청녀

150주년을 기념하며

54, 58

청소년

우울해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

62

어린이

물몬경 카드놀이를  
해 보세요

친12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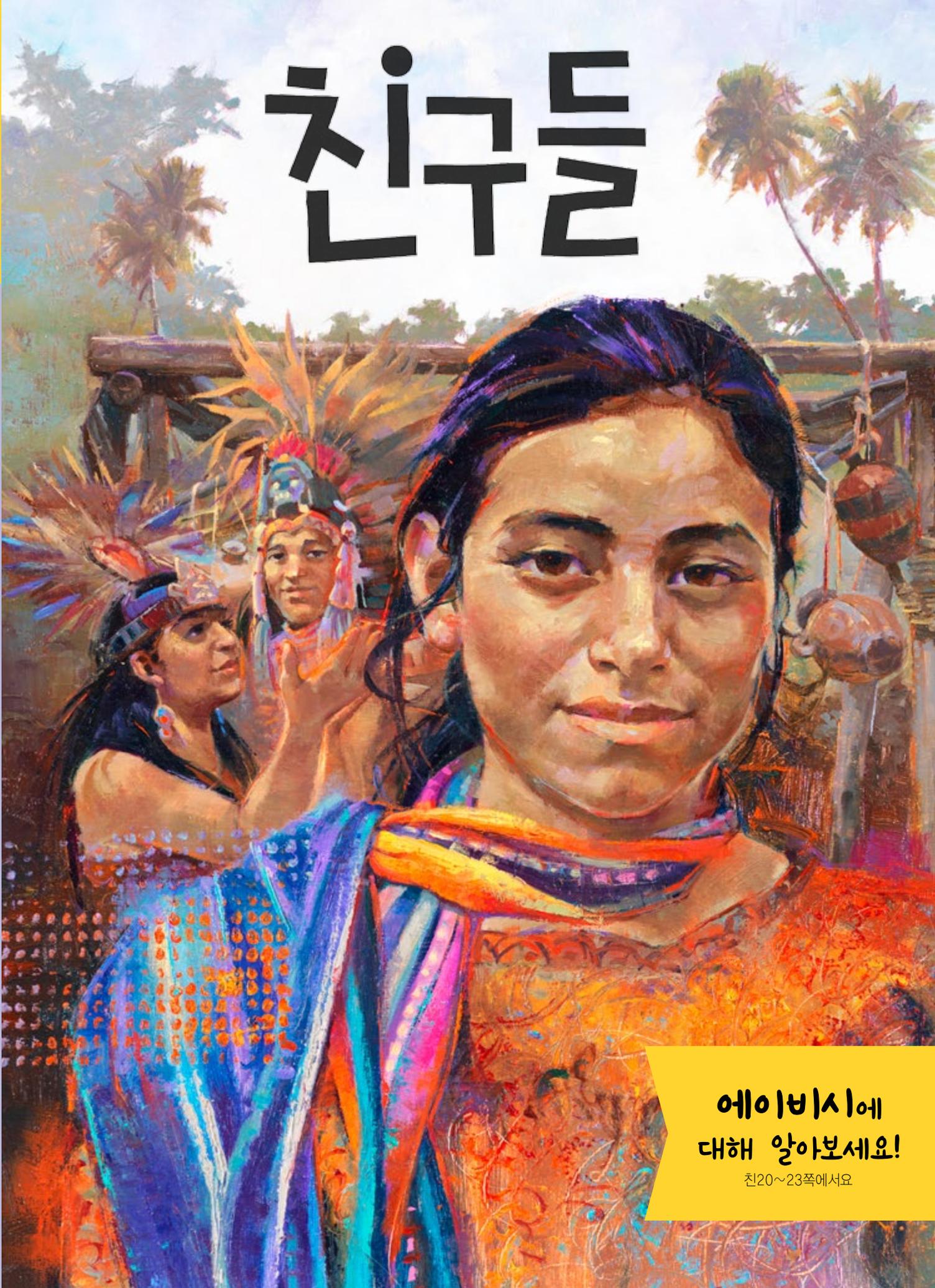


KOREAN

4 02167 21320 8

# 친구들

『리아호나』 어린이 책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에이비시에  
대해 알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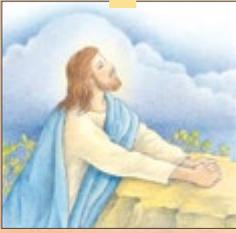
친20~23쪽에서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간증과 몰몬경

단 몇 줄이라도 저는 몰몬경을 읽을 때면  
언제나 몰몬경이 참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 본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저의 간증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몰몬경은 제가 가장 아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몰몬경을 여러분의 지침서로 삼으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9월호 4~6쪽에서 가져옴.



## 자신의 간증

간증이란 성신이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참되었다고 말해 줄 때 받는 좋은 느낌을 말해요. 여러분처럼 어린 나이에도 간증을 가질 수 있어요. 아래에 나와 있는 기다란 모양의 종이 띠들을 오려 내어 그릇이나 병에 넣고 매일 하나씩 골라 실천해 보세요. 마음속에 간증을 느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 보세요!

“주 사랑 느껴요”를 부른다.  
(『어린이 노래책』, 42~43쪽)

“갯세마네”를 부른다.  
(『리아호나』, 2018년 3월호, 74~75쪽)



성전 사진을 본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그림을 보거나  
그분에 관한 성경 비디오를 본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신이 주는 느낌에 귀 기울인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라 하였노니 ...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니파이후서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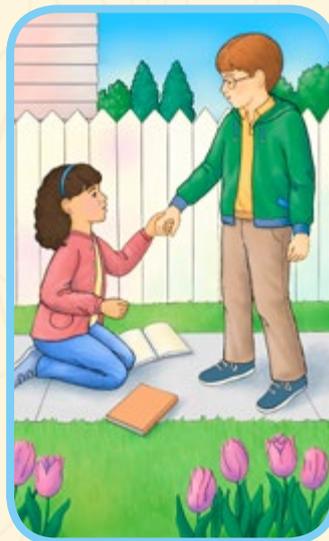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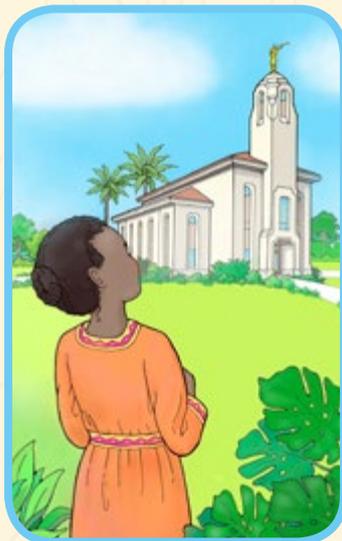
## 저는 이럴 때 성신을 느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성전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여러분은 언제  
성신에게서 오는 간증을  
느껴 보았나요?



# 켈리의 기도

로리 풀러 소사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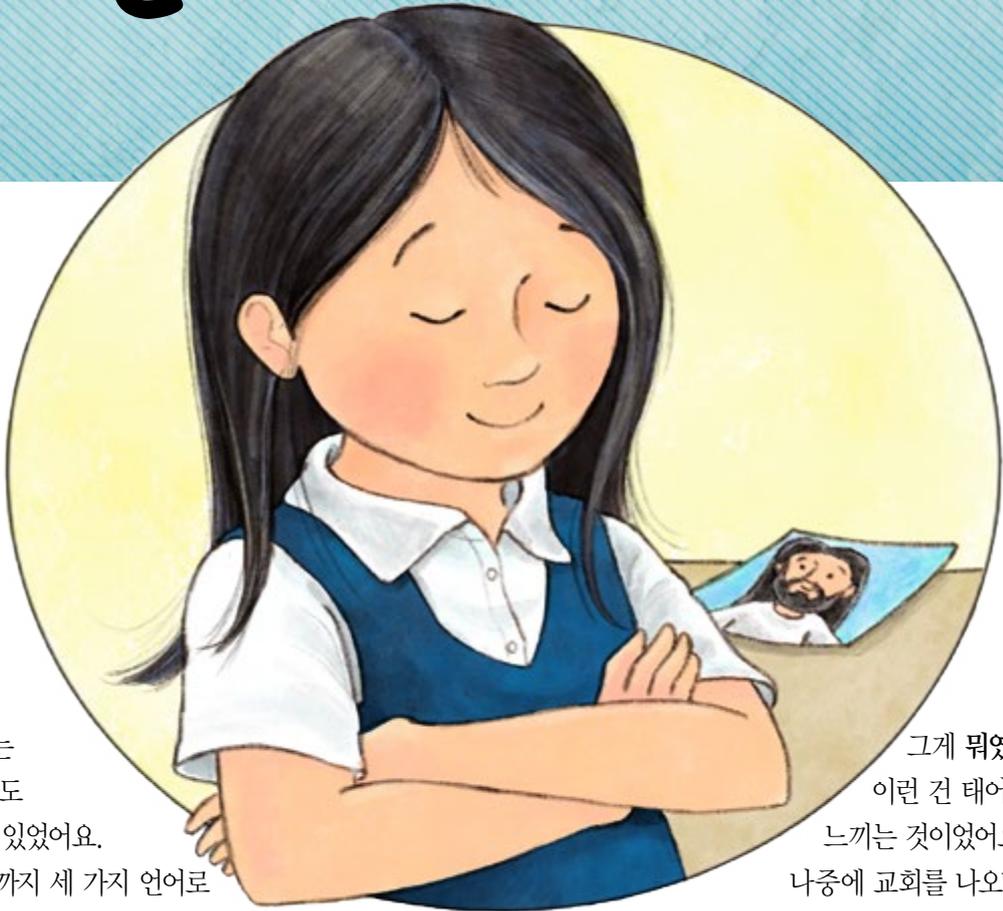
**켈**리와 엄마는 교회 건물로 다가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교회 건물은 아름다웠고, 바깥에는 야자수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건물 현판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까지 세 가지 언어로 말이예요!

켈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고, 교회에 가 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의 친구분인 리자 아줌마는 이 교회의 회원이세요. 리자 아줌마는 교회에 같이 가 보자며 켈리와 엄마를 초대하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모두들 아주 친절했어요. 켈리와 엄마는 리자 아줌마를 따라 위층에 있는 커다란 방으로 갔어요. 리자 아줌마는 그곳이 예배실이라고 했어요.

켈리는 줄지어 늘어선 의자에 앉았어요. 켈리 옆으로는 엄마와 리자 아줌마가 나란히 앉으셨어요. 그리고 곧 교회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켈리는 음악에 귀를 기울였어요. 노랫말은 몰랐지만, 음악이 주는 느낌이 좋았어요.

모임이 끝날 무렵, 한 여자분이 일어나 기도를 했어요. 주위를 돌아보니 모두 팔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켈리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아주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교회를 나오면서,  
켈리는 기도하는 동안 받았던 느낌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글쎄, 난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하고 말씀하셨어요.

켈리는 교회에서 받았던 느낌을 계속 생각했어요. 켈리는 그 기도가 좋았고,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도 좋았어요.

“선교사님들이랑 복음 공부를 해도 돼요?” 켈리가 엄마에게 여쭙었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엄마는 “네가 그러고 싶다면 그러렴.” 하고 대답하셨어요.

선교사들은 켈리에게 기도하는 법과 경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어요. 켈리는 그렇게 배우는 내용들이 참 좋았어요.

하루는 선교사들이 켈리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었어요.

파커 장로님은 “이번 주에 기도해 볼래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켈리는 선교사들과 함께 있을 때만 기도를 해 왔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기도해 보고 싶었어요. 켈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과 자신이 하는 기도를 그분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요.” 켈리는 약속했어요.

이튿날 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켈리는 대회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중국어 노래도 새로 배웠지요. 음을 모두 다 익히는 건 꽤 힘든 일이었어요! 켈리는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공연 시간이 되자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켈리는 그날 아침 교복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예수님 사진을 꺼냈어요.

켈리는 선교사들이 보여 주었던 것처럼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긴장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다음, 켈리는 무대에 올랐어요. 켈리는 객석과 심사위원들을 바라보았어요. 주머니에 들어 있는 예수님 사진에 대해 생각하자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 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연습한 대로 노랫말을 모두 불렀어요. 마지막 음을 끝내고 인사를 했을 때, 켈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켈리는 웃음을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선교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빨리 말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켈리는 자신이 앞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게 될 거란 걸 알았어요. ●





안녕하세요?  
여기는  
독일이예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마고와  
파울로예요!  
우리 함께  
독일로 떠나 볼까요?



독일, 다른 말로 도이칠란트는 유럽 중부에 있는 나라예요. 숲과 강, 산과 해변, 작은 마을과 큰 도시가 두루 있는 곳이지요. 독일에는 1,300만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살고 있어요.

이 나라에는 약 2만 개의 성이 있는데, 지은 지 수백 년이 되는 것들도 많아요. 사진에 있는 성은 노이슈반슈타인이라 불리는 유명한 성이에요.



독일에서 즐겨 먹는 음식으로는 사우어크라우트[독일 양배추 김치-웁긴이], 소시지, Spätzle(슈페츨러; 면요리)가 있어요.

독일에는 두 곳에 성전이 있어요. 한 곳은 프라이부르크에, 다른 한 곳은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요. 사진에 나오는 성전은 프랑크푸르트 성전이에요. 성전 벽에는 “Tempel der Kirche Jesu Christi der Heiligen der Letzten Tage” 라고 쓰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전이라는 뜻이죠.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해요.



독일은 성탄절 시장으로 유명해요.  
가족들은 예쁜 불빛을 구경하고  
맛있는 간식을 즐기죠!



『어린이 안내서』는 독일어로 이렇게  
생겼어요. 독일의 어린이들은  
이 책을 활용하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는  
『어린이 안내서』를 어떻게 쓰나요?

## 독일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 보세요!

물문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방문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고 싶어요. 구주의  
가르침에 대해 더 많이 읽을수록  
그분의 사랑과 평안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릴라 에이, 10세, 독일 프랑코니아**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에 확실하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성신을 느낄 때면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언제나 알 수 있어요.  
**칼립 에이, 12세, 독일 프랑코니아**

**독일에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 처음  
등교하는 날 사첵(책가방),  
필통, 그리고 간식과 작은  
선물이 가득 든 “학교  
콘”(Schultüte 또는  
Zuckertüte)을 받아요.

우리와 함께 독일을  
탐험해 주어서 고마워요.  
다음에 만나요!



# 해마처럼 수영하기

데이비드 덕슨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성신은 ...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임이라.”(니파이후서 32:5)

**로**빈은 수영장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얼마나 멀리 헤엄쳐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요. 중요한 건 휘장을 따는 것이었어요. Seepferdchen[지피어첸: 독일어로 해마] 휘장을 따면, 독일 사람은 누구나 로빈이 혼자서 수영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할 수 있어!’ 로빈은 생각했어요. 로빈은 깊게 숨을 들이쉬던 뒤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침범!**

날씨가 무척 더워서 차가운 물 속이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전에 아빠는 ‘한 번에 1미터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5미터를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요.

로빈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 헤엄을 쳤어요. 여러 달 동안 연습한 대로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몇 초마다 고개를 들어 숨을 내쉬었어요.

발을 차고, 팔을 젓고, 발을 차고, 팔을 젓고.

갑자기 수영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부셨어요. 로빈은 깜짝 놀라 위를 쳐다봤어요.

“잘했다!” 선생님이 소리치셨어요.

해낸 거예요!

로빈은 신이 나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물속에서 몇 번이나 재주넘기를 하면서 이 순간을 자축했어요. 로빈은 이제 해마 등급이 되었어요!

집에 도착한 로빈은 후다닥 아빠에게 갔어요.

“아빠, 보세요!”

아빠는 들고 있던 망치를 내려놓으셨어요. seepferdchen[해마] 휘장을 보자마자, 아빠는 활짝 웃으셨어요.

“한 번에 따낸 거야?” 아빠는 로빈을 꼭 안아 주셨어요.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필하면 좋을까?”

로빈은 잠시 생각했어요. “제일 하고 싶은 건 함께 수영장에 가는 거예요.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아빠는 더 크게 함박웃음을 지으셨어요. “**그거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네. 시간이 나는 대로 함께 가 보자.”

신이 난 로빈은 주먹을 번쩍 치켜올렸어요. 해마 휘장을 붙인 수영복을 입고 아빠와 수영을 하러 갈 날이 너무나 기다려졌어요.

머칠이 지났어요. 수영장에 언제 갈 건지 계속 여쭙 보았지만, 늘 다른 일이 생겨서 아직도 수영장에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늘 바쁘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로빈은 기도하기 위해 침대맡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를 끝낼 무렵, 로빈은 한 가지 내용을 덧붙였어요.

“**아빠에게** 여유가 생겨서 우리가 함께 수영장에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뜨는데, 아빠가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영장에 가자. 로빈의 수영 실력을 직접 보고 싶거든!”

로빈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빠!** 믿지 못하실 거예요.

아빠에게 여유가 생겨서 함께 수영장에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방금** 기도했거든요.”

아빠는 팔짱을 끼고 문가에 기대셨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 있지, 방금 **아빠도** 너를 수영장에 데려가야 한다는 조용하고도 분명한 성신의 메시지를 들었거든. 어서 가는 게 좋겠다!”

두 사람은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로빈은 아빠에게 25미터를 쉬지 않고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본 아빠는 감탄하셨어요. 로빈도 잠수해서 재주넘기를 하시는 아빠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빠는 물속 재주넘기를 다섯 번이나 연달아서 하셨거든요!

로빈이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아빠가** 시간이 나도록 해 주셔서 기뻐요.”

아빠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게 말이야, **아빠** 생각엔 **아빠가** 바쁘게 지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 오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는 걸 성신이 다시금 알려 주신 것 같아. 그렇지 않나? 앞으로 **아빠가**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할게.”

로빈은 방긋 웃었어요. “저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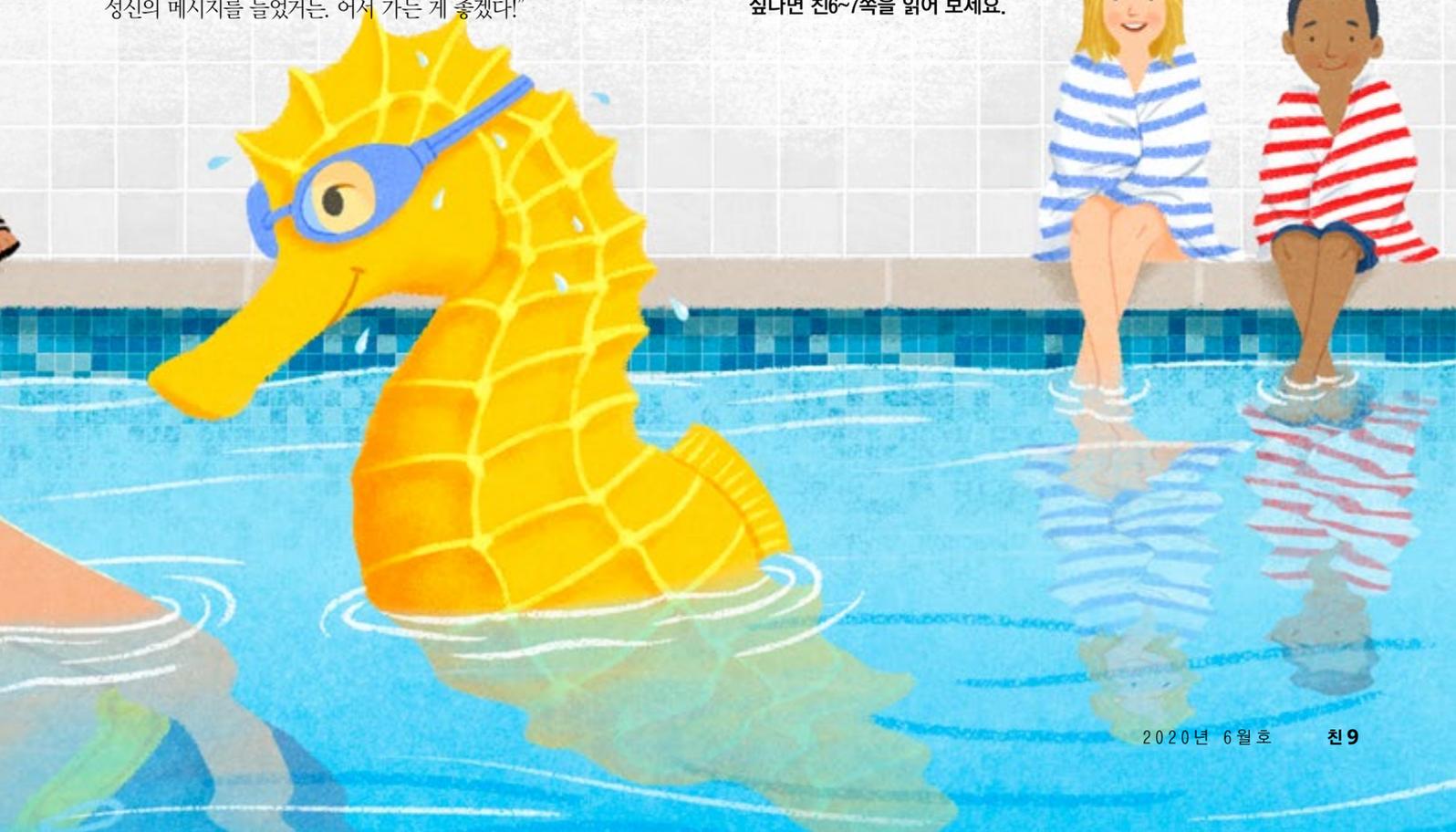
아빠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면서 눈가에 잔주름이 피었어요. “한 가지 더 있어. **아빠는** 물싸움을 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던가?”

로빈은 씩 웃으며 맞장구쳤어요. “길고 짧은 건 대 봐야 아는 거죠!” ●

**이 이야기는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친6~7쪽을 읽어 보세요.**



삽화: 마크 로빈슨



# 패턴을 완성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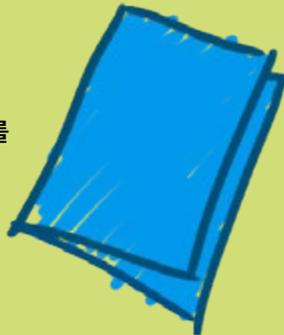
다음은 복음을 배우도록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네 가지 방법이에요.  
 각 줄의 패턴이 완성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그림을 그려 넣으세요.

여러분이 초등학교에서 말씀을 할 때  
 친구들을 초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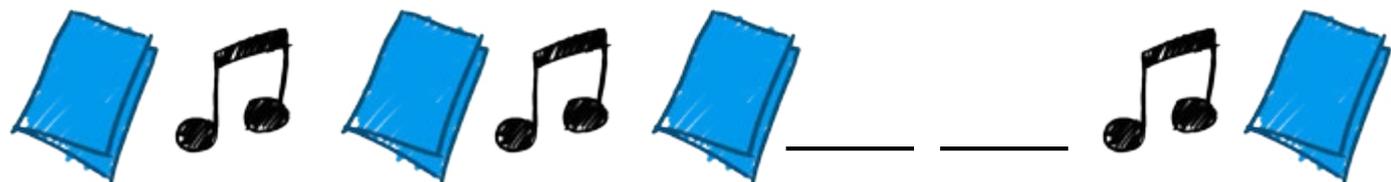


친구에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초등학교 노래를  
 가르쳐 주고 함께 불러 보세요.

「친구들」 잡지를  
 나누어 주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 주세요.



# 어린이 발표



**어**릴 때 저는 피부병을 앓았어요. 저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낫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어요. 저는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5년 후에는 병이 다 나아갔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주영, 12세, 대한민국 경기도



**제** 친구의 여동생은 개를 무서워해요. 개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그 아이가 겁을 먹지 않도록 손을 흔들어서 개들을 쫓아 주었어요.

하이렘 에프, 7세, 모잠비크 마푸토



**저**는 애완용 대벌레를 키우는 걸 좋아해요. 한 번은 한 마리가 무척 아팠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친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대벌레집을 들여다보니 그 친구가 다 나아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타니 시, 8세, 뉴질랜드 웰링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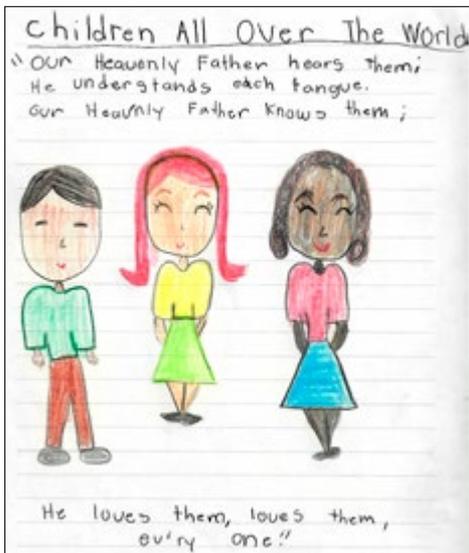


**아**빠는 제가 일곱 살 때 뇌졸중으로 병원에 가셨어요. 아빠는 제가 여덟 살이 되었을 때도 병원에 계셨어요. 저는 아빠가 퇴원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례와 확인을 받기로 했어요. 그날은 저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윌리엄 엠, 9세, 호주 퀸즐랜드



미겔 티, 7세, 멕시코 누에보레온



"온 세상의 어린이들", 알렉시아 더블유, 10세, 코스타리카 에레디아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들려준 이야기 때문에 밤마다 정말 무서웠어요. 어느 날 밤에 저는 그 이야기를 잊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은 제가 매일 밤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에네텔 티, 11세, 몽골 울란바토르

#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서에 나오는 인물을 몇 명이나 알아맞힐 수 있나요?

1. 왼쪽에 있는 '난 아니야!' 딱지들과 친15쪽에 있는 카드들을 오리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오리지 마세요.
2. 시작하기 위해, 친15쪽의 카드 중 하나를 고르세요. 고른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카드를 골랐는지 알아맞춰야 하거든요.
3. 다른 사람들은 카드를 알아맞히기 위해 친13쪽 그림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카드 속 인물의 생김새나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 네/아니요로 답해야 할 질문을 해야 해요.
4.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인물의 범위를 좁혀 가면서, 제외되는 인물의 그림은 '난 아니야!' 딱지로 덮어야 해요. 예를 들어, "머리가 갈색인가요?" 하고 물었는데 카드를 고른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하면, '난 아니야!' 딱지로 갈색 머리를 한 인물의 그림을 모두 가리는 거예요.
5. 인물을 알아맞힌 후, 카드에 적힌 이야기를 모두에게 큰 소리로 읽어 주세요. 놀이를 더 하려면 딱지를 모두 치운 후, 다른 사람이 새로운 카드를 고르게 하세요.

**참고:** 시작하기 전에 친15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소리 내어 읽어 줄 수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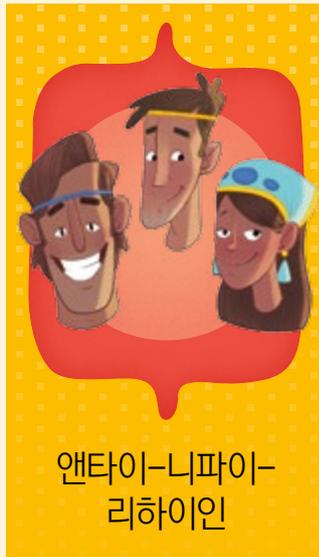
난  
아니야!



앨마 이세



암몬



애타이-니파이-리하이인



왕후



라모나이 왕



에이비시



아론



코리호어



아멜리카이아



모로나이 대장



여종



힐라맨의 이천 용사



게리 비 사빈  
장로  
칠십인 정원회

#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베드로전서 3:8)

**제** 아들 저스틴은 힘든 병을 앓으며 자랐습니다. 가끔은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했지만, 저스틴은 남들처럼 사는 게 때로는 힘이 들었습니다. 저스틴은 남과 다르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루는 저스틴이 친구들과 모여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공을 공중에 계속 떠 있게 하기 위해 팔로 공을 쳐야 했습니다. 놀러온 친구 중에는 팔을 다친 소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좋아, 우리가 노는 동안 재는 보고 있으라고 하자.” 하고 말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스틴은 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모두 한 팔로 하자.” 석고 붕대를 감고 있는 소녀까지 모든 아이가 한 팔만 사용해서 놀이에 동참했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말입니다.

저스틴은 저의 영웅입니다. 저스틴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스틴은 삶의 대부분을 병마 속에서 지냈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어려움이 있지만, 행복해할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





**에이비사:**

나는 오래전에 아버지께서 시현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어요. 나는 라모나이 왕을 위해 일하던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도록 도왔어요.



**라모나이 왕:**

나는 복음에 대해 배웠을 때 시현을 보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뵈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간증을 전했고, 감옥에 있던 선교사들이 구출되도록 도왔어요.



**코리호아:**

나는 예수님이 가짜라고 믿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려 노력했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했어요. 나는 갑자기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암몬:**

나는 모사이야의 아들 중 한 사람이에요. 선교 사업을 하던 시절에 나는 라모나이 왕의 양 떼를 지키는 일을 했고, 라모나이 왕과 왕후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애타이-니파이-리하이인:**

한때 우리는 싸움을 많이 하던 레이맨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전쟁 무기를 묻고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앨마 이세:**

나는 선지자인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나는 친구들과 나쁜 선택을 솔하게 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과 저는 회개하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 나는 누구일까요?—카드를 골라 보세요

이 카드들을 이용해서 친12~13쪽에 나오는 놀이를 해 보세요.



**왕후:**

나는 사람들이 남편이 죽었다고 말할 때 남편을 보호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난 후, 나의 중 에이비사의 도움을 통해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모로나이 대장:**

나는 니파이인 군대의 대장이예요. 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는 자유의 가치를 만들어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힐라맨의 이천 용사:**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에게서 신앙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의 가족을 보호해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론:**

나는 모사이야의 아들 중 한 사람이에요. 나는 선교 사업 중에 라모나이 왕의 부모님을 가르쳤어요. 그분들은 복음을 배운 후 자신들의 영토에서 선교사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지요.



**아멜리카이아:**

나는 정말이지 왕이 되고 싶었어요! 나는 레이맨인 사령관에게 독을 먹여서 그의 군대를 차지했어요. 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해를 입히도록 설득하려고 했어요.



**여종:**

누군가 나를 다치게 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할 만큼 용감했어요. 나는 모로나이 대장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와 함께 일했어요.

# 일라이가 내민 도움의 손길

리베카 라이스 버킨  
실화에 근거

“내 두 손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네”(어린이 노래책, 126쪽)

**토** 요일 아침이었어요.  
골대에 선 일라이는 몸을  
웅크리고 공을 막아 낼 준비에  
들어갔어요. 일라이는 이리저리  
뛰고 몸을 날리며 젖먹던 힘을  
다해 공을 쳐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역부족이었죠! 경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 손에서 공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점수가  
상대편에게 돌아갔어요! 일라이의 팀이 진 거예요. 일라이는 정말  
슬펐어요.

다음 날 교회에서도 일라이는 여전히 침울해 있었어요. 일라이는  
느린 걸음으로 초등학교 교실로 향했어요.

일라이는 교실 밖에서 친구인 케이트를 보았어요. 케이트의  
엄마가 케이트의 분홍색 휠체어를 교실 안으로 밀고 들어오셨어요.  
아줌마는 케이트를 안아 주시고는 본인의 공과반으로 가셨어요.

“안녕, 케이트.” 일라이가 인사했어요.

케이트는 대답하거나 손을 흔들지는 못했지만, 항상 일라이의  
눈을 또렷이 바라보았어요. 그러면 일라이는 케이트가 자기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보통은 일라이가 인사하면 케이트는 방긋 웃곤 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케이트는 지금 슬픈 걸까?’ 일라이는 궁금했어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나도 알아.’

일라이도 어제 상대편의 결승골을 막지 못한 일 때문에 아직  
슬퍼하고 있었거든요.

일라이는 영 자매님이 공과를 시작하실 때 후안과 마켈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케이트가 훌쩍이기 시작했어요.  
케이트는 몸이 아파서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케이트, 오늘 혹시 아프니?” 영  
자매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케이트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초등학교 노래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구나.” 영 자매님이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케이트는 음악을 무척  
좋아했어요. 보통은 행복한 소리를  
내며 따라 부르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케이트의 기분이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일라이는 궁금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알겠다!” 일라이는 영 자매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케이트의 휠체어를 조금 밀어 줄게요.”

케이트가 힘들어할 때 케이트의 엄마가 휠체어를  
천천히 밀어 주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일라이는  
짹짹 케이트에게 가서 휠체어를 앞뒤로 천천히 밀어  
주었어요.

그러자 케이트가 울음을 그쳤어요.

“나도 해 봐도 돼?” 후안이 물었어요.

“나도!” 마켈이 말했어요.

영 자매님께서 공과를 가르치시는 동안, 일라이와  
친구들은 차례차례 케이트의 휠체어를 밀어 주었어요.  
케이트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마치 교실 전체가 더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공과가 끝날 무렵에는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어요.

“케이트를 돕고 나면 저도 행복해져요.”

삼화: 멀리사 맨윌



일라이가 말했어요.

영 자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도 기쁘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행복해하실 거야. 그분은 케이트를 사랑하시고, 케이트의 기분이 나아지기를 바라시니까.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단다.”

일라이는 케이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짓는 웃음이 늘 나에게 힘이 돼.”

케이트는 활짝 웃었어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라이는 화창한 여름날의 축구장만큼이나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라이는 생각했어요. ‘공을 모두 잡아 내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손은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수 있어.’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우리는 진심 어린 친절과 봉사를 통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봉사에서 느끼는 기쁨”,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48쪽.

#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 내 목표는 요리하기

페르난다 지, 10세, 브라질 파라나

**저**는 요리를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안내서'를 받았을 때, 아빠와 함께 요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아빠가 요리하실 때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아빠처럼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저는 아빠와 함께 가게로 가서 재료를 샀어요. 그런 다음, 아빠는 밀가루를 아름다운 케이크로 만들어 내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 주셨어요. 나중에는 다른 요리법도 알려 주셨구요.

이 목표를 위해 노력하면서 아빠와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아빠랑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아빠는 저를 잘 가르쳐 주세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함께 요리하는 동안 제가 휴대폰에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리에 대해 생각할 때면 마음속에서 기쁨이 마구마구 샘솟아요. 저는 요리가 정말 좋거든요! 이 목표는 제가 좋아하는 걸 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저만의 목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재능을 발전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목표를 이루도록 돕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 목표를 통해 제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를 돕고 싶어 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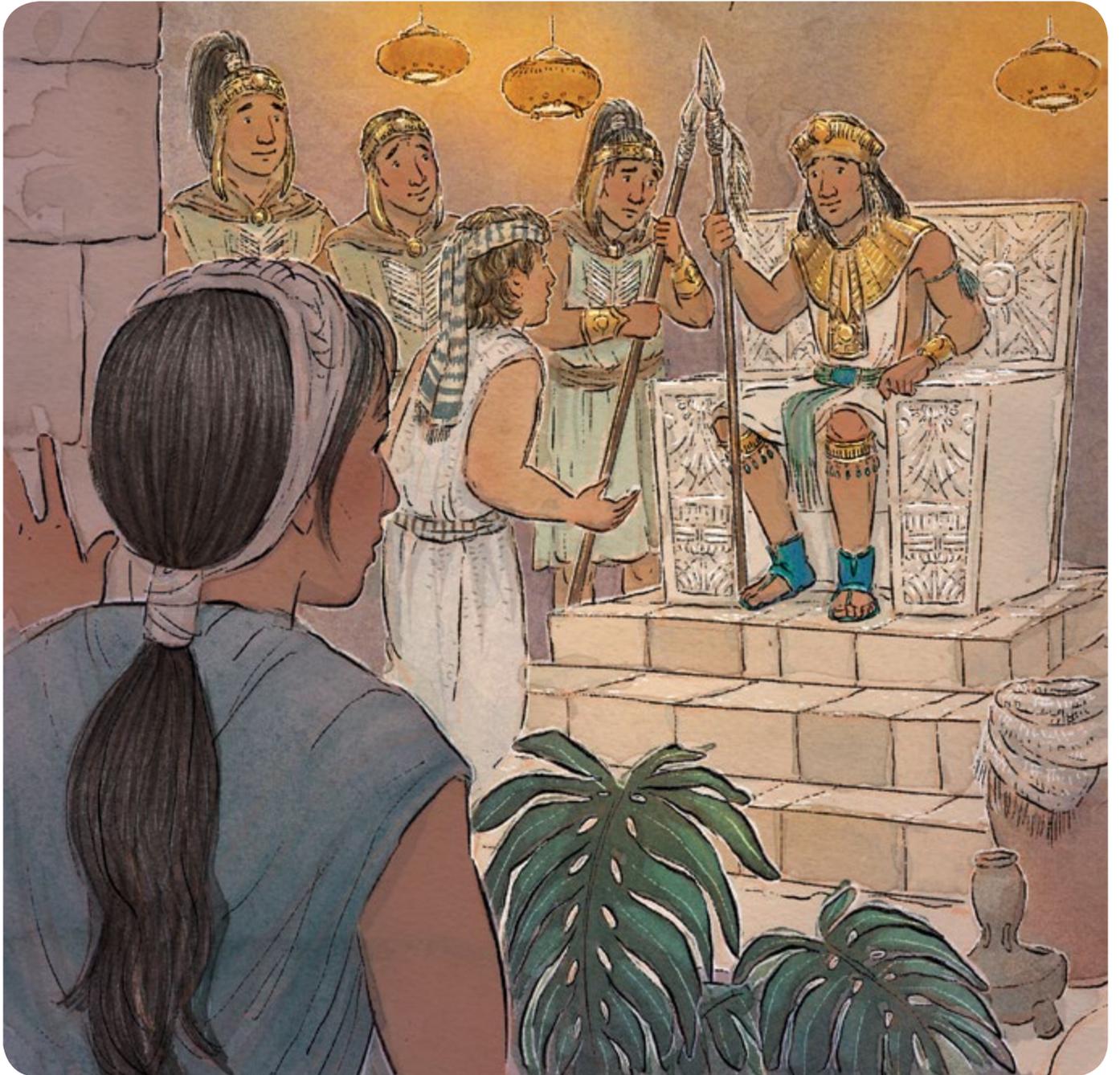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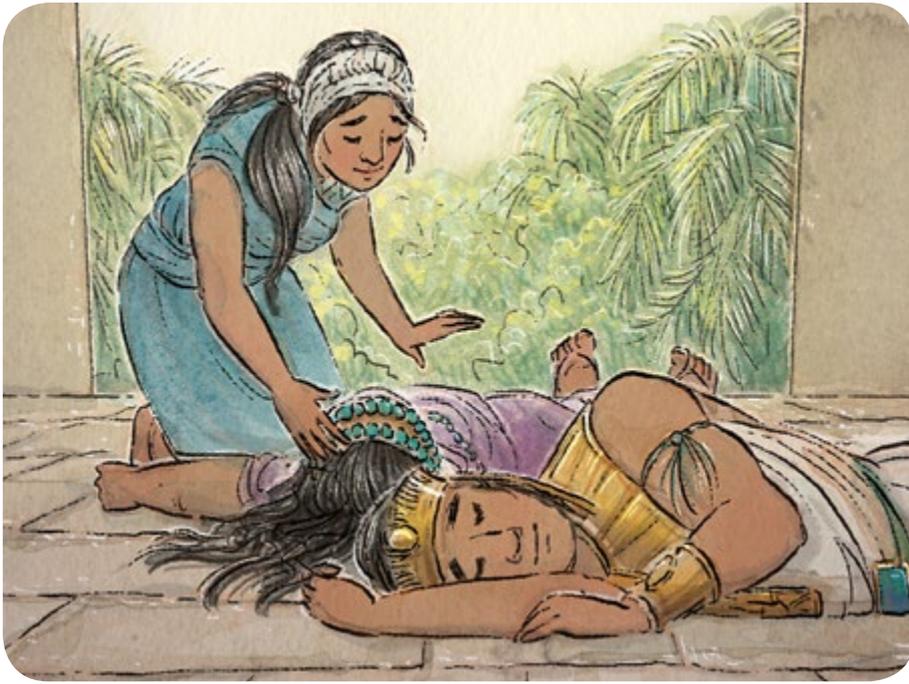


『어린이 안내서』는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에이비시는 복음을 나누었어요



에이비시는 왕을 위해 일하던 여성이었어요. 에이비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에이비시의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에이비시는 암몬이라는 선교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왕과 왕후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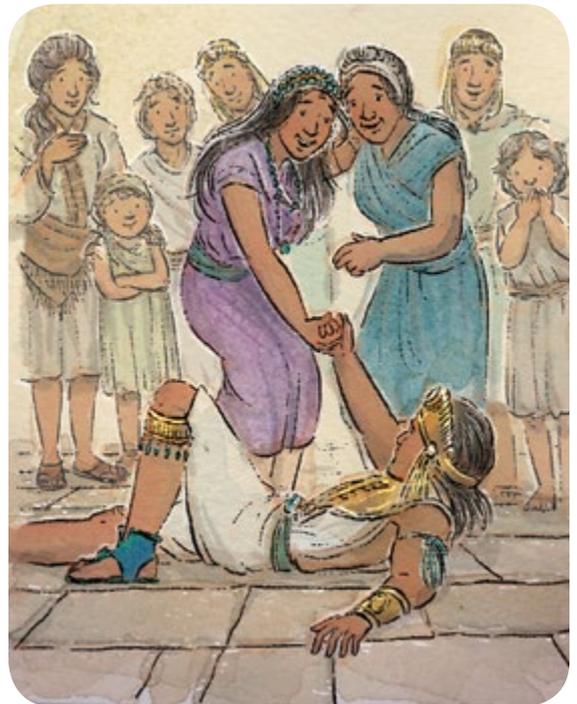


왕과 왕후는 복음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왕과 왕후는 쓰러져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에이비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에이비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집마다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모이자, 에이비시는 왕후가 일어서도록 도왔어요. 그런 다음, 왕후는 왕이 일어서도록 도왔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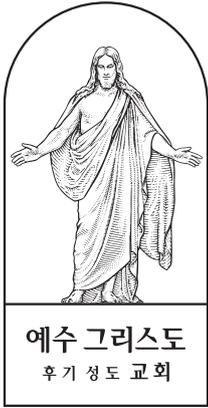
나는 에이비시처럼 될 수 있어요. 나도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도록 도울 수 있어요. ●

앨마서 18~19장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 보세요.

# 에이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번 달에 우리는 엘마 이세, 에이비시, 모사이야의 아들들과 같은 선교사들에 대해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12~13쪽에 나오는 놀이나 친20쪽에 있는 이야기를 활용하여 물몬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번 달에 시도해 볼 선교 사업 목표를 한 가지 적어 보세요. 친10쪽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실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일을 계속 해 나가십시오!

친구들

### 자녀의 예술 작품이나 경험을 「리아호나」에 보내고 싶습니까?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또는 자녀의 이름과 나이, 거주 지역, 그리고 "나 [부모의 이름]은/은 내 자녀가 제출한 자료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교회 잡지, 교회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그 밖의 교회 자료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문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목차

- 친2 제일회장단으로부터: 간증과 물몬경
- 친4 켈리의 기도
- 친6 안녕하세요? 여기는 독일이에요!
- 친8 해마처럼 수영하기
- 친10 재미있는 활동: 패턴 완성하기
- 친11 어린이 발표
- 친12 나는 누구일까요?
- 친14 친구가 친구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 친15 나는 누구일까요?—카드 선택하기
- 친16 일라이의 도움의 손길
- 친18 빛나는 아이디어
- 친19 내 목표는 요리하기
- 친20 경전 이야기: 에이비시는 복음을 나누었어요
- 친23 색칠하기: 에이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책 안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